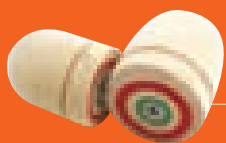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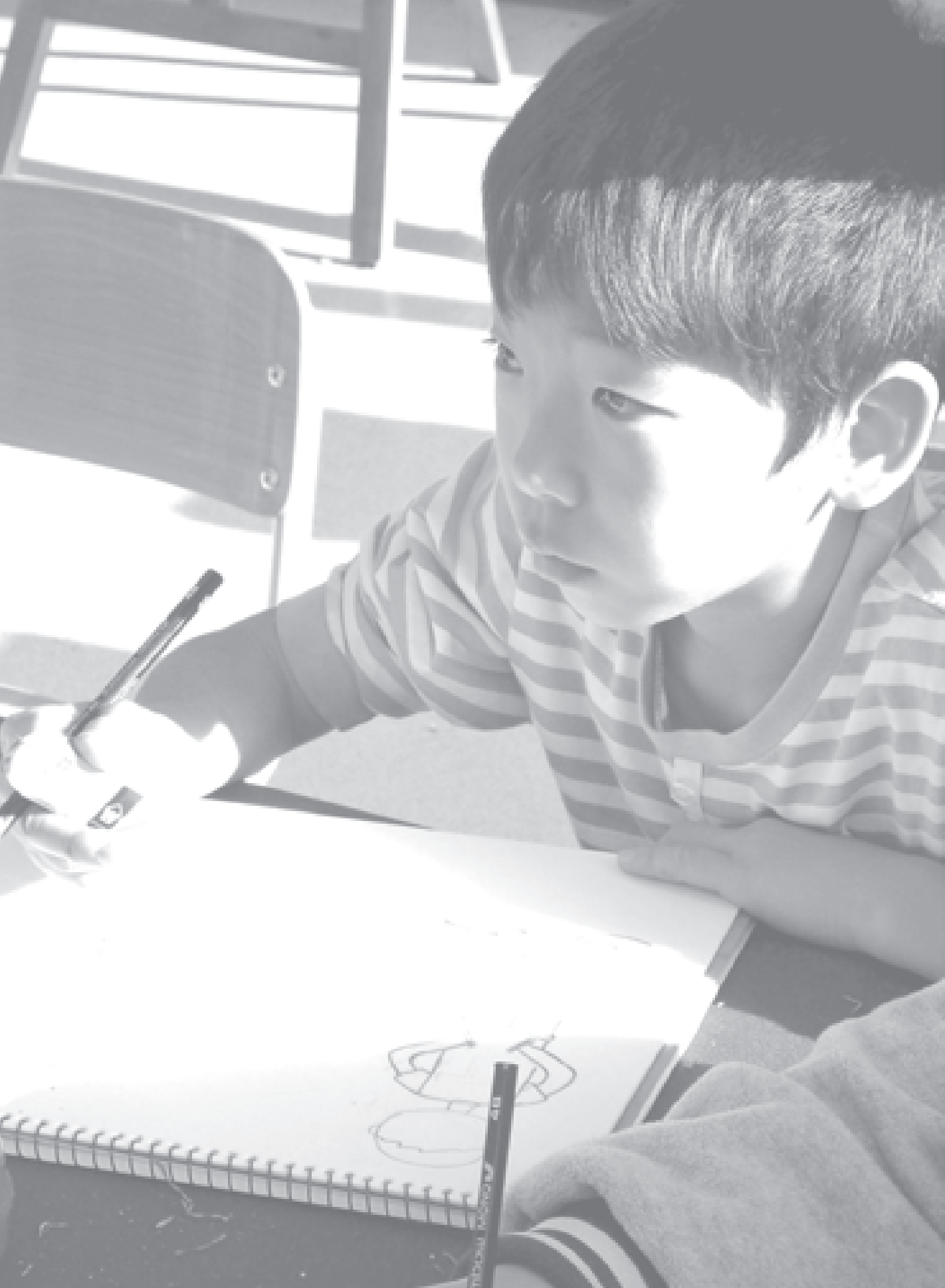


오리엔탈리즘

2010.03 Vol. 212 March





Contents

2010. 03 Vol. 212 March



02	연합회 소식	한국문화원연합회 제 49차 정기총회
04	연합회 사업	지방문화원 육성 발전 방안 전문가 워크숍
08	한지붕 한술밥	태백문화원
12	연합회 사업	2010년 국고보조금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14	흘러서 흘러서, 강	인문학자가 강에 대해 말하다
18		낙동강 700리, 그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22		죽음과 삶이 한 덩어리로 만나는 곳 인도 갠지스 강
28	책 수집가 안정웅의 오거지서 (五車之書)	한국 서지학(書誌學)의 개척자들
34	인식의 전환 진화하는 그림들	천가지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
38		미술치료의 힘, 진짜 동과 그림 동
42		고양이와 엄마, 만화가 뛰어노는 집
48	한국의 예절	공통예절
54	연합회 레이다	문화원 이모저모
58		우리문화소식
59		원장동정



등록번호 서울라 12184 | 발행 한국문화원연합회 | 주소 약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 홈페이지 www.kcof.or.kr | 전화 02-704-2311 ~ 3 | 팩스 02-704-2377 | 발행 · 편집인 최중수 | 편집위원 박호원(대신문화재단 사무국장), 김
정관주 서구문화원장, 박덕규(단국대 교수), 한춘선(성남문화원장) | 편집위원 문선희 | 편집 디자인 디자인 인코 02-832-7924 | 인쇄 태형 인쇄(02-268-2111)

원고는 편집부와 연락 후 우편이나 e-mail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접수 시 설명 주스, 견본화(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요. e-mail로 보내실 경우 300dpi 이상 해상도로 송신을 받으신 후 보내 주시기요.
우리문화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우리문화'를 보내드리거나 요청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게재된 기사 및 이미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일종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책자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가 3,000원

2010

한국문화원연합회
제 49차 정기총회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지난 1월 28일(목) 오전 11시 세종 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 49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지방문화원 및 지역문화발전 유공자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시상이 있었다. 박수갈채 속에 허문 부평문화원장, 이상구 이천문화원장, 김복현 익산문화원장의 시상이 진행되었다.

최중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48차 총회에서 승인한 국고예산과 기금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부는 지방문화원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니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했다.

제1호 의안인 2009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승인의 건과 제2호 의안인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의 건을 각각 상정하여 원안대로 승인받았으며 제3호 의안인 임원 선임의 건 중 신설된 이사 3인은 회장단에게 일임되었으며 대구시지회장과 전

남도지회장은 각각 새로이 선임되었다. (표참조)

직책	성명	현직	비고
이사 (당연직)	이재녕	한국문화원연합회 대구시지회장	대구남구문화원장
이사 (당연직)	김학근	한국문화원연합회 전남도지회장	곡성문화원장
이사	김영웅	부산 연제문화원장	
	한춘섭	경기 성남문화원장	
	정원용	충북 영동문화원장	

1. 인사말을 하고 있는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
2. 허문영 부평문화원장, 이상구 이천문화원장, 김복현 익산문화원장 시상 장면
3. 감사보고중인 고창식 평창문화원장, 정경진 나주문화원장
4. 문화비전선언문을 낭독한 조재인 여수문화원장

2010 지방문화원 육성 발전 방안 전문가 워크숍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지방문화원 육성 발전 방안 전문워크숍이

지난 2월 10일(수) 오후 2시에 연합회 회의실에서 있었다.

지방문화원 육성 발전 방안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현가능성, 효율적 체계 정립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위한 자리였다.

연합회에서는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외 4명과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과의 노정동 사무관, 외부위원으로

이선철, 정정숙, 심오섭, 박용휘, 박승현, 신두섭 위원이 참석하였다.

주요안건으로 ① 지방문화원 육성 발전 종합계획 추진방향 논의 ② 비전체계 핵심가치 및 당위성 검토

③ 실천과제별 위원별 의견 개진 및 종합 토론이 있었다.

앞으로도 지방문화원 육성 발전 방안 회의가 이어질 것이며 권역별 세미나도 있을 예정이다.

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내용

- ▶ 지방문화원의 역사성 및 특수성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명칭 개정 필요
 - * 육성발전은 문화원 50년 역사성에 부적합 → '제2의 도약', 혁신, 전환 등 함의 필요
- ▶ 연합회 / 지방문화원의 자생적, 자발적 가치전환을 통한 상향식(bottom-up) 추진체계 확립 필요
 - * 연합회 및 지방문화원의 주도적, 내발적 성찰 부각 정부의 전략적 후방지원
- ▶ 전체 로드맵 제시 후 유형별, 특성별 모듈 개발 필요
 - * 지역, 공간, 인력, 예산 등의 특성 및 도농편차를 고려한 맞춤형 매뉴얼 개발
- ▶ 단기, 중장기 계획에 대한 적합한 구조 및 정책변화에 따른 유동성 제고
 - * 단기(1년), 중장기(3년이상) → 2010년 당면과제를 토대로 중장기 마스터플랜 구축
- ▶ 지방문화원진흥법상 지원 조항의 귀속성 부여를 통한 실질적 지원 육성 방안 마련 필요
 - * 진흥법의 특수성 효력화 필요 / 연합회의 거점역할 강화 및 적합한 실천과제 개발
- ▶ 전략목표(거점화/특성화)의 명확한 규정 필요
 - * 타문화기관과의 관계설정 재정립 → 차별화가 아닌 협력의 가치 창출 / 동네(주민)중심 의 밀착형 사업계획 필요(스토리텔링, 동네만들기, 향토사 전승·개발)

과제별 논의

- ▶ 전국 227개 조직망의 효율적 활용 및 네트워크강조
- ▶ 기존 가치를 넘어선 성찰을 통해 제2의 도약 필요
- ▶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기능 및 교육 강화(대학, 산학협력단 연계)
- ▶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한 전문성 및 창의성 강화



- ▶ 공간 및 시설확충을 통한 자체재원 마련 고민
- ▶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발맞춘 문화세 도입 고려
 - * 일본 법정목적세(지방세) 존재함, 우리나라 레저세 시행중 / 분권교부세 5년연장(2014년 폐지) 대책 마련 시급
- ▶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 및 자치조례제정 활성화를 통한 체계강화
 - * 시도지회 독립법인화(지자체 재원확보), 진흥법 지원규정 '일정비용 보조~' 로 명확화
- ▶ 연합회 자발적 R&D(연구기능) 강화 필요
 - * 내발적, 자발적 연구기능 강화를 통한 문화원별 맞춤형 전략(Action Running)개발

기타 논의

- ▶ 펀드레이징 및 펀드레이저 도입을 통한 가치 강화
 - * 공공성, 주민밀착성, 지역성 등 함의/ 사업공모, 기부, 메세나 등 적극 활용
- ▶ 향토사 기반 다양한 콘텐츠 강화(문화원 장점 양성)
 - * 굿(금산, 강릉, 동해) 재현 및 복원 사업, 향토문화전자대전, 신택리지 등
- ▶ 온라인 홍보 및 아카이브 기능 강화
 - * 문화원 통합 정보제공 사이트, 자원 전승 및 활용 강화를 위한 아카이브 구축
- ▶ 정부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다양한 시도 필요
 - * 문화로 촘촘히, 유희공간 재생 및 활용, 지자체별 협업시스템 강화
- ▶ 밀착형 추진방안 마련 및 브랜드마케팅 강화
 - * E-러닝 / G-러닝, 웹메일, 지역문화브랜드상 도입, 국제교류 활성화 등





전국 지방문화원 권역별 세미나 일정

회차	일정	개최장소	권역구분	문화원수
1차		서울	인천(8), 경기(31), 제주	41
2차		서울	서울(25), 강원(18)	43
3차	2010.	장성	광주(5), 전남(22), 전북(14)	41
4차	3-4월	군위	대구(8), 경북(23)	31
5차		합천	부산(12), 울산(5), 경남(20)	37
6차		유성	대전(5), 충북(12), 충남(17)	34

* 위의 일정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2010 전국 지방문화원 권역별 세미나 지역문화를 창조하는 전문경영조직으로의 변화모색

목적 및 추진배경

- ▶ 전국 지방문화원장 및 사무국장 등을 권역별로 나누어 동시에 교육시킴으로써 상호 이해하는 기회 마련
- ▶ 지역실정에 맞는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교육가능
- ▶ 권역별 관심분야에 대한 심층토론 및 지역에서의 문화사업 전반을 이해하는 교육을 통해 전문경영조직으로의 변화모색





추진방향

- ▶ 문화원장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권역별 종합세미나 개최
- ▶ 통합교육 및 분반교육을 통한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 구성
- ▶ 중앙정부 및 지자체공무원, 외부전문가, 문화원장 및 국장 등을 패널로 구성한 지방문화육성발전 종합토론회

사업내용

- ▶ 교육시기 | 3~4월 (1박2일)
- ▶ 교육장소 |
- ▶ 교육대상 | 227개 지방문화원 및 16개 시도지회(원장 및 직원) 700여명
- ▶ 교육내용 | 인문학, 지방문화원육성발전종합토론회, 국고사업의 이해(정부정책), 지역문화특강, 문화원 우수사례발표 및 분임토론 등

* 지방문화원육성발전 종합계획 토론회 참석(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

- ▶ 소요예산 | 72,000천원

* 세부내역 별첨

추진계획

- ▶ 사업계획 및 일정 수립 | '10년 2월
- ▶ 공문시행 및 등록 | '10년 2월
- ▶ 사업시행 | '10년 3~4월
- ▶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종료 후

기대효과

- ▶ 분리되어(원장, 국장, 직원 등) 시행했던 세미나를 통합·운영함으로써 상호소통을 통한 문화원운영 활성화가능
- ▶ 프로그램을 현실에 맞게 구성함으로써 교육효과의 극대화와 함께 정보공유를 통한 지방문화원 조직의 총체적인 네트워크 실현
- ▶ 지방문화원육성발전종합계획(안)을 실천하는 공감대 마련을 통해 지역의 문화거점으로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심을 유도하는 계기 마련

365일 열리는
문화상점으로 구경 오세요

태백문화원

태백은

예로부터 신성시된 지역이었다.

근래의 역사에서는

탄광촌으로 근방에서는

이름 깨나 날리는 부촌이었다.

커다란 궤적을 그리며

성큼성큼 걸어온 태백,

그리고 문화원.

지금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그 발자국을 쫓아보았다.







끊임없이 부서지고 낮아지는 자리, 문화원장 부슬부슬 내린 비로 태백문화원 앞의 산도 머리를 감추었다. 조용한 도로 옆에 서있는 태백문화원. 봄이면 가을이면 그때의 제 색을 내느라 분주했을 담쟁이 넝쿨들이 고풍스럽게 달려있다. 문화원의 기둥이라도 되는 듯 단단하게 진한 고동색으로. 태백문화원에 들어서면 제일 눈에 띄는 것은 현수막이다. 큰 글씨로 시원시원하게 쓰인 태백문화원이라는 이름이 듬직하고 단단하다. 더욱 재밌는 건 원장실이다. 한 기관의 장이 쓰고 있는 방답지 않다. 원형으로 놓인 탁자도 그렇고 곳곳의 캐리커처, 음악 CD 등이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든다.

“문화원이, 특히 원장이라는 자리가 권위적인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부단히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지는 것이 원장의 자리예요.

‘문화’라는 개척지에서 재미있는 아이템을 발굴하고 개발해서 요구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리거든요. 오히려 운영의 주체가 되는 곳은 사무국이에요. 끊임없이 교감하고 합의하는 사람일 뿐이죠, 저는.”

감히 문화원장은 깨지고 부서지는 자리라고 단언하는 권영환 태백문화원장이다. 그것이 권 원장의 문화원 운영방침이기도 하다.

더불어 풍요로워지는 문화나눔, 그래서 태백문화원은 문화상점

우리 문화원에서 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하나예요. 저는 소수가 문화를 독점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문화원이 향후 나아갈 곳은 아주 소소하고 미세한 부분까지 이뤄지는 문화나눔이에요. 문화를 자주 접하고, 즐기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느 시골의 할머님까지, 연극이 뭔지 음악이 뭔지 들어보지 못한 분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간의 간극을 줄이며 더 많은 문화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문화상점이에요. 인제는 가면 세제도 사고 라면도 사고 아이스크림도 시는 상점이에요. 뭐 특별히 어디를 가야하고 특별히 차려 입어야 즐기는 문화가 아닌 동네 가게에 가듯이 우리 문화원에 오시게끔 하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생필품적인 문화라고 말하는 권 원장은 문화원은 밤낮도 주말도 없는 상점이라고 단호히 말한다.

낮아짐과 내려놓음을 미덕으로 알고 365일 열어두는 문화상점이라는 태백문화원에 들러 골라볼 일이다. 어떤 맛있는 문화가 있는지구경하면서, 또 골라 가면서.



강원지역의 꿈을 이룬다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문화원이 함께하는 2010년도 하이원 드림플러스

삼 척



태 백

강원 지역의 태백 · 삼척 · 영월 · 정선 4개 문화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이원 드림플러스' 가 강원 지역에 새로운 문화 바람을 불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이원 드림플러스 사업은 하이원리조트가 주최하고, 강원지역 4개 문화원과 한국메세나협회가 주관하여 진행된다.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은 2009년의 연장선상에서 강원 지역 14개 초등학교 280여명과 아동 및 지역 예술인 25명을 대상으로(2009년 대비 3개교 신규 지원) 총 4억원의 지원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작년 이뤄진 사업을 합하면 총 7억 원이 넘는 큰 규모의 사업이다.

폐광지역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창의력 신장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문화예술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지역 예술인에게 활동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자생적 발전 기반 마련, 지역 내 문화사회공헌 활동으로 기업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20회,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1회, 문화예술캠프 2회, 발표회 1회, 예술강사 워크숍, 사업설명회, 사업평가 간담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2009년에 이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2년 연속 지원으로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문화공헌활동을 시행하며, 지역 내 학교 및 학부모 대상 기업 이미지 제고와 수혜 아동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재능 발굴의 기회, 지역 내 예술인 지속적인 활동 기회 부여 등 많은 효과 가능하게 하는 이번 사업에 귀추가 주목된다.

폐광지역이라는 문화적 동질성을 기본으로 지역의 기업에 제안한 4개 문화원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빛나길 기대해본다.



영 월



정 선

한국문화원연합회

2010년 국고보조금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향토사대중화사업 4억,
지방문화원어르신문화프로그램
23억 지원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최중수)는 2월 17일 오후 1시 송파문화원 2층 강의실에서 지방문화원 관계자 1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10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사업설명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최중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많은 지방문화원이 향토사대중화사업 및 어르신문화학교 사업에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과 장희식 선생은 지방문화원의 역량강화,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 예산집행기준 등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지원사업에 관한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전명찬 사업부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본 설명회에서는 향토사대중화사업,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

그램의 공모사업 개요, 프로그램 내용, 신청서 작성 요령 등에 대한 안내를 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각 사업별로 지원사업의 추진절차, 참여 방법, 선정기준 등을 소개했으며, 문화원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관한 지원과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등 문화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흘러서
흘러서
강

인문학자가
강에
대해
말하다

인문학자가 江
강에 대해 말하다



江으로 의견이 분분하니 십 년도 더 된 이야기 한 자락 하자. 지금 거명하면 알 만한 사람 다이는 우리 대학 교수가 '한강 센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내가 사는 지역이 북한강 상류 거점도시인데다, 시민들도 물과 환경의 중요성을 느끼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학문을 책상물림으로만 할 게 아니라면 대학이 속한 지역에 마땅히 봉사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나보고 맡으라고 뉘달했다. 딱히 거절할 명분도 없고, 그보다는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 일단 연구소에 명단을 올렸다.

원래 태생이 섬이라 나는 아직도 바다를 오감으로 느낀다. 지방에서 죽 자라다 대학에 입학하고 서울로 왔는데 한 학기 내내 바다가 그리웠다. 한번은 친구들과하고 바다 구경차 소래 포구에 갔다 개펄만 보고 크게 실망하고 돌아온 적이 있다. 나중에 한승헌, 송기숙, 송기원 같은 전라도 출신 작가들 글을 읽게 되었는데, 개펄에 녹아든 독한 사연을 읽으면서 그 끝 간 데 없이 펼쳐진 풍경이 내 내면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개펄에 대해선 '태백산맥'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정작 나 자신은 이 작품에 별 감명을 받지 않았다). 흔히, 문학이 현실을 모방한다고 하지만, 정반대로 현실이 문학을 모방하는 경우도 있는 법이다. 이제는 개펄만 보면 전라도 표현대로 가슴이 징하다.

강과 친해진 것은 춘천에 오고 난 후부터이다. 유학을 끝내고 춘천에 자리 잡았는데, 봄부터 가을까지 낚시꾼 교수들 따라다니는 재미가 쏠쏠했다. 여름방학에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홍천강가에 가면 먼저 간 낚시꾼들이 채비를 펼치고 이미 매운탕 거리를 장만해 놓았다. 어스름이 몰려오면 여기 사투리로 빠가사리가 '빠각 빠각' 소리를 내면서 물가로 몰려오는 소리가 들린다. 그때만 해도 인가가 많지 않아 밤이 되면 사위가 적막했다. 달빛 아래 물가에서 매운탕에 소주를 반주하던 때가 지금도 그렇다. 이제는 그런 낚시꾼들이 대학에서 다 사라졌다. 개발로 인해 강 주변에 호젓한 맛이 사라졌고, 오염 때문에 고기를 잡아도 먹을 수 없고, 무엇보다 제도가 엄격해져 방학 때 논문을 써야 하니 한여름 음풍농월하던 것도 다 과거 적 이야기이다. 그런데 한강센터는 제대로 굴러가지 못했다. 이유야 여러 가지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연구소 자체가 남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였다. 강과 수질오염에 관심을 보이는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환영했지만 정작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부담스러운 존재였다. 지금도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시의원들은 각종 규제로 팽팡 뚫여 있는 수변지역을 풀어 모델과 기든을 지어야 한다고 야단인데, 이런 분위기에서 환경, 오염, 보존을 강조하는 일은 환영받을 수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한강센터에 합류하고 느낀 것인데 인문

어스름이 몰려오면 여기 사투리로
빠가사리가 ‘빠각 빠각’ 소리를 내면서
물가로 몰려오는 소리가 들린다.
그때만 해도 인가가 많지 않아
밤이 되면 사위가 적막했다.
달빛 아래 물가에서 매운탕에 소주를
반주하던 때가 지금도 그립다.
이제는 그런 끈들이 대학에서 다 사라졌다.
개발로 인해 강 주변에 호젓한 맛이 사라졌고,
오염 때문에 고기를 잡아도 먹을 수 없고,
무엇보다 제도가 엄격해져 방학 때
논문을 써야 하니 한여름 음풍농월하던 것도
다 과거 적 이야기이다.



학자인 나는 별 할 일이 없었다. 한강 담론은 수질 담론이고, 수질 담론은 생물학자와 사회정책 전문가들의 영역이었다. 연구비는 주로 수자원공사를 비롯하여 관계기관의 정책이나 인맥을 어느 정도 알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요량이 있어야 했다. 책상물림으로 시 나부랭이 읽던 영문학자가 할 일이라고는 없었다. 그때 건진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경험은 전문가를 따라 동강, 서강 등 강자락 답사 다닌 일이다. 그런데 정작 연구소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자 인문학자의 몫이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이 ‘쩐’ 이 없으면 개점휴업인데 반해 ‘쩐’이 떨어지자 책상과 분필만 있으면 되는 인문학자들이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소장이 나더러 인문적 상상력으로 강을 보는 기획을 부탁했고, 그 결과가 ‘강: 문학적 형상과 기억달’이라는 책이다. 여가활동의 가능성을 쫓는 정책입안자와 응용 가능성을 묻기 위해 화학적 산소량을 따지는 자연과학자들의 담론에 따르면 강은 돈벌이와 연구의 대상일 따름이다. 하지만, 강이 낚시를 하거나 발전을 하고 전원주택을 돌보이게 하는 풍경 이상이라는 명제를 입증하기 위해 예를 들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담론 속에서 헤매면서 나는 우리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온 강에 대한 기억, 우리 언어에 묻어 있는 강의 이미지가 그냥 조금씩 퇴화하는 게 안타깝게 느껴졌다.

나는 바닷가 출신이라 그런지, 바닷가와 강의 차이는 내 체험 속에 묻어서 피부 깊숙이 박혀 있다. 내가 느끼는 바닷가는 강보다 훨씬 거칠고, 노골적이고, 증오가 난무한다. 부산역 앞에서 택시를 타보면 바닷가 정서를 금방 안다. 역 앞 택시 정류장에는 늘 줄이 길게 서 있다. 보통 내륙의 도시라

면 예의 바르게 택시를 기다려 전세 낸 것처럼 한 사람씩 타고 간다. 그런데, 참을성 없는 부산사람들은 대개 합승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것도 운전사가 호객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내 기억에 아련한 것은 추운 겨울날 동래 쪽으로 가는 손님이 타자마자 창문을 내리고 팔을 창밖으로 휘둘리며 “동래, 동래!” 하고 외치는 풍경이다. 추우니 빨리 가지는 것이다. 내용만 전달되면 형식은 어땠든 상관없다는 이 정서에 비해 박재삼 시인의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은 얼마나 애잔하고 깊은 것인가. 예를 들면, 가을 햇볕을 받으며 서러운 마음을 삭이며 산등성이까지 올라가다 가을 강을 보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다.

제삿날 큰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을 보겠네.

저녁 무렵의 강은 큰집 제삿날 느끼는 친지에 대한 각별한 추억보다 더 애처롭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된다.

저것 봐, 저것 봐,
네보담도 내보담도
그 기쁜 첫사랑 산골물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가는
소리 죽은 가을 강을 보겠네.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이고, 이제는 미



칠 것 같은 내 마음을 보여주는 저 해질녘의 강은 온갖 설움을 새기면서도 눈물로 세상과 화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한 순간의 강렬한 축제의 기억이 된다. 박재삼과는 달리 김용택 시인의 <뒤를 보며>에 나오는 섬진강은 참으로 푸근하다. “풀벌레 산 가득 울어 캄캄하게 귀먹는 밤”에 시인은 저녁밥 먹고 “어슬렁어슬렁 강변으로 똥 싸러간다.”

물가 바위에 똥처럼 꾸구려 앉아
시원하게 똥을 싸며
어둔 강물이랑 강물에 뜬 별이랑
어둠 속에 박힌 하얀 꽃꽃들이랑
캄캄한 앞산 뒷산이랑 둘러보다가
소쩍새 소리 간간히 들으며
턱 괴고 세상만사도 생각하며
공공 힘을 쓰는데

시인은 등 뒤로 하늘에 뜬 달이 바로보고 있어 뒷통수가 간지러웠다고 능청을 떠다. 물론, 이 능청 속에 세상만사 헛헛하게 보는 넉넉한 초월적 자세가 있음은 물론이다. 하긴 서정인의 ‘강’은 또 어떤가?

전반부에서는 어린 시절 영민하지만 가난 때문에 꿈을 잃고 사회로 본격 편입하기 전에 이미 걸 넘어버린 작중인물이 느끼는 상실과 단절의 질감은 최소한의 활력마저 잃어버린 시골의 일상적 이미지와 겹치면서 독자에게 강

하게 전달된다. 후반부는 술집 작부의 시점에서 전개되는데, 그녀는 취해 쓰러진 대학생이란 존재에 묻어나는 환영적 풍요 속에 곁게 살고 싶었던 이루지 못한 자신의 소망을 투여한다.

전반부의 무력감과 상실은 끝까지 작품의 기본적 질감으로 계속 되지만, 작부의 소망성취적 환영이 너무 진지하기에 마지막 눈 내리는 밤 풍경 속에서 현실은 자취를 감추고 작부의 환영적 소망은 잠시 동안 현실적 실감을 얻는다. 그런데, 작은 시골마을 ‘군하리’를 배경으로 잔잔하게 펼쳐지는 이 작품 속에서 우리는 단 한번도 ‘강’과 만나지 않는다. 즉, 서정인의 ‘강’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희망이 사그라지는 현실을 누그러뜨리는 따뜻하고 잔잔한 감정적 질감 속에서 흐른다.

그 당시 참으로 다양했던 강들의 이미지들 속에 녹아 들었던 체험의 질감을 잠시 붙들려 했었다. 처음 작업은 그런대로 주목을 받았는데 후속작업을 하지 못했다. 한강센터 창립을 주도했던 친구가 관계로 진출하면서 연구소를 이끌 열정 있는 인재가 따로 없었고, 물에 대한 연구가 가져올 사회적 논란을 맞받아치면서 자신의 연구업적을 쌓으려는 연구자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중에는 한강센터라는 명칭이 가진 매력으로 인해 정치인을 소장자로 앉히려는 시도도 있었고, 나는 발을 빼고 말았다. 이때 경험으로 느끼는 바지만, 일은 함부로 벌일 게 아니고, 벌이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번 만들면 없애기도 어려운 일이라 아직도 대학편제 어디엔가 간신히 숨을 쉬고 있을 것이니, 말 그대로 유아무야한 조직이 되었다. 강을 주제로 글을 쓰다 보니 내가 사는 춘천시 슬로건이 생각난다.

“희망이 강물처럼 흐르는 도시”인데, 시청은 말할 것 없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이마뺨마다 대형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내가 이 구호를 탐탁찮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로는 어설픈 문학청년 체취 때문이고, 더 큰 이유는 춘천 주변 강이 흐르지 않기 때문이다. 춘천은 ‘호반의 도시’ 이지 ‘강의 도시’가 아니다. 진짜 춘천이 ‘희망이 강물처럼 흐르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송승철 한림대 영문학과 교수

낙동강 700리, 그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신라와 가야, 낙동강을 경계로 대립하다

3세기 후반에 신라와 전가야연맹체를 대표하는 금관가야가 낙동강을 경계로 대치하면서 경쟁하였다. 『삼국사기』에 신라가 황산진과 황산하(黃山河)에서 금관가야와 전투를 벌였다고 전한다. 황산진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낙동강가에 위치한 나루이고, 예전에 경남 양산과 김해지역 사이에 흐르는 낙동강을 황산강이라고 불렀다. 황산강은 바다로 유입되기 전에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이를 삼분수(三分水) 또는 삼차수(三叉水)라고 부른다. 황산진은 세 갈래로 갈라지기 전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그것은 낙동강 하류에서 중·상류를 연결하던 요해처(要害處)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부산광역시 동래와 김해는 김해시 불암동에 위치한 불암진과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용당마을에 위치한 용당포를 연결하는 교통로를 이용하여 왕래하였다. 용당포는 고려시대까지 가야진(伽倻津)이라고 불렀다. 신라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금관가야를 정벌할 때에 그곳을 자주 이용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하였다. 신라는 3세기 후반 무렵에 황산진과 가야진을

개설하여 낙동강 수로를 통제 장악하는 한편, 이곳들을 기반으로 금관가야를 누르고 영남지역의 대표적인 나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532년에 금관가야를 병합하기에 이르렀다. 가야진이라고 부른 나루가 하나 더 있었다. 『고려사』에 경남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에 가야진(伽倻津)이라는 나루가 있었다고 전한다. 조선시대에 이를 기강진(岐江津)이라고 불렀다. 용산리는 낙동강과 남강이 합류하는 지점이었다. 이 근처에 위치한 나라가 바로 경남 함안의 아라가야였다. 신라가 용산리에 가야진을 개설하고, 남강을 거슬러 올라가 아라가야뿐만 아니라 남강 유역에 위치한 여러 가야세력을 압박하였을 것이다.

5세기에 이르러 고려의 대가야가 금관가야를 대신하여 가야연맹체를 대표하는 나라로 성장

하였다. 5세기 중반 무렵에 만든 옥전고분군 M1, M2호분에서 신라계통의 토기와 유물이 대거 발견되었다. 당시까지 신라가 옥전고분군 축조 세력에 대하여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5세기 후반에 만든 옥전고분군 M3호분에서는 대가야계통의 토기와 유물이 대거 발견되었다. 고구려가 5세기에 남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자, 신라와 백제가 나제동맹을 맺어 대응하였다. 신라가 고구려의 남침에 국력을 기울여 대응하는 틈을 타 대가야가 세력을 키워 옥전고분군 축조 세력을 복속시켰음을 반영한다.

옥전고분군은 낙동강 서쪽의 경남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에 위치하였다. 황강을 통하여 낙동강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인 황둔진이 성산리에 있었다. 5세기 후반에 대가야는 신라를 대신하여 황강의 수로를 장악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낙동강까지 진출하였다. 대가야가 낙동강 서안에 집중적으로 산성을 쌓아 신라의 동진에 대비한 사실이 이를 증명해준다.

조선시대의 사서나 지리서에 낙동강 중류에 위치한 나루에 대한 정보가 전하는데, 나루 근처의 동안과 서안에 신라와 대가야가 쌓은 산성이 위치하였다. 5세기 후반에 신라와 대가야가 낙동강을 경계로 대치하면서 그 동안과 서안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에 상대방의 침략에 대비하여 산성을 쌓았음을 알려준다.

이후 한동안 신라와 대가야는 낙동강을 경계로 하여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다가 결국 562년에 신라가 대가야를 멸망시키고 모든 가야 지역을 신라의 영토로 병합하기에 이른다. 대가야의 멸망 이후 낙동강에 위치한 포구와 나루들은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다만 낙동강을 항해하는 선박이 정박하는 중간기항지나 또는 낙동강을 왕래하는 사람들의 도진(渡津)으로서 주목받았다.

낙동강은 전세곡의 운송로, 왜국 사신의 상경로였다.

고려시대에 지방에서 거둔 전세곡을 조창(漕倉)에 보관하였다가 조운(漕運)을 통하여 수도인 개경으로 운송하였다. 경상도에 사천의 통양창과 마산시 합포의 석두창이 있었다. 두 조창에서 분담하여 경상도 각 고을의 조세를 징수하여 보관하였다가 해로를 통하여 배로 개경으로 옮겼는데, 이를 조운이라고 부른다. 고려시대에 낙동강 연안에 위치한 고을에서는 전세곡을 선박에 싣고 낙동강 수로를 통하여 석두창 등에 옮겼을 것이다.

조선의 개창 이후 경상도의 전세곡은 창원의 마산창, 사천의 통양창, 김해의 불암창에 보관하였다가 해로를 통하여 한양으로 이송하였다. 불암창은 낙동강 하구의 김해시 불암동에 위치한 조창으로서 근처에 불암진이 있었다. 낙동강은 하류에서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불암진은 그 본류가 흐르는 곳에 위치하였다. 여기에 낙동강 유역에 위치한 고을에서 거둔 전세곡을 배로 운송하여 보관한 것이다. 그런데 연해를 따라 전세곡을 조운하던 방식은 태종 3년(1403) 5월에 경상도 조운 선박 34척이 침몰되는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크게 변하였다. 해로를 통한 전세곡의 운송이 위협하였기 때문에 낙동강 유역에 위치한 경상도의 각 고을에서는 전세곡을 낙동강 수로를 통하여 상주 낙동진(경북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까지 이송한 다음, 거기에서 육로로 문경새재를 넘어 충주 경원창(가흥창)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물론 충주 가흥창에 보관된 전세곡은 남한강 수로를 통하여 다시 한양으로 옮겨졌다. 물이 풍부한 여름철에는 안동지방까지, 평상시에는 예천군 용궁면의 삼강진까지 배가 통행하였다. 다만 물이 부족한 갈수기에는 낙동진까지만 배가 통행하였다. 전세곡은 비교적 물이 적은 2월에서 시작하여 5월까지 납입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낙동진까지 전세곡을 운송하게 조치한 것이다. 이후 일부 고을은 육로로 전세곡을 운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가 성종 때부터 경상도의 전세곡 일부를 삼포(三浦: 부산포, 염포, 제포)에 위치한 왜관의 운영 경비로 충당하면서 낙동강 연안에 위치한 고을들은 전세곡을 낙동강 수로를 통하여 부산창에 납입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전기에 낙동강은 전세곡의 운송로였을 뿐만 아니라 왜국의 사신이 한양으로 가는 상경로로 이용되었다. 1426년 3포 개항 후인 1432년(세종 14)에 크게 육로와 수로로 구분하여 왜인의 상경로를 정하였다. 이 가운데 낙동강 수로를 이용하는 코스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부산포에서 출발하여 낙동강 수로로 양산과 창녕,



조선시대의 사서나 지리서에
낙동강 종류에 위치한
나루에 대한 정보가 전하는데,
나루 근처의 동안과 서안에
신라와 대가야가 쌓은 산성이 위치하였다.
5세기 후반에 신라와 대가야가
낙동강을 경계로 대치하면서
그 동안과 서안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에
상대방의 침략에 대비하여
산성을 쌓았음을 알려준다.

선산까지 이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이포(제포: 경남 진해시 웅천동)에서 출발하여 김해와 창녕, 선산까지 이르는 것이다. 이후 왜국의 사신은 선산에서 육로로 충주로 가서 광주를 거쳐 한양으로 상경하였다. 낙동강 수로를 이용한 상경로가 꽤 멀었기 때문에 중간에 그들이 쉴 수 있는 객관을 두었는데,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와 왜관읍 금산 2리, 경남 창원시 북면 본포리 근처에 왜관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경북 칠곡의 왜관이라는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세종 때에 왜인이 출발하는 낙동강 수로의 출항지는 현재 경남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에 위치한 도요저(都要渚)였다. 그러나 도요저가 3포에서 거리가 멀어 왜인이 가지고 온 물건을 운반하기 어려워 1457년(세조 3)에 출항지를 양산의 동원진(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동원마을)으로 옮겼다. 이때부터 동원진이 왜인과 교역하는 요지로 주목받았다. 한편 낙동강 수로로 상경할 때에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화원창, 즉 왜물고(倭物庫)에 왜국 사신이 가지고 온 구리와 철, 소목(蘇木) 등을 보관하여 두었다.

후에 거기에 보관된 물품 가운데 국가에서 쓸 만한 것은 중앙에 상납하게 하고, 나머지 물품은 백성들에게 판매하였다. 이 때문에 근처에 위치한 사문진(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 1리)이 한때 상선의 왕래가 잦은 나루로 각광받기도 하였다. 이밖에 왜국의 사신이 주로 정박하던 나루가 밀양의 수산진(경남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과 선산의 월과정진(여차리진: 경북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이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왜국의 사신이 수산진과 월과정진을 지날 때에 고을의 수령이 그들을 성대하게 접대하였다고 전한다.

낙동강의 포구와 나루, 교역중심지로 떠오른다.

조선후기에 농업생산력의 증대와 더불어 잇따른 세계개편으로 전세곡의 운송이 크게 늘어났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관

선(官船)으로 운영되는 조운제도가 점차 개인 배를 임대하여 조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조선후기에 경상도 각 고을은 세 가지 방식으로 전세곡을 납입하였다. 첫 번째는 육로로 충주 가흥창에 납입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낙동강 수로를 이용하여 부산창에 납입하여 왜관의 운영 경비를 충당하는 것인데, 이를 흔히 왜공(倭供)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를 임대하여 낙동강 수로와 남해·서해안 해로를 통하여 한양에 납입하는 방식인데, 이를 임운(賃運)이라고 불렀다. 특히 임운으로 지정된 고을은 처음에 인동의 증지창(경북 칠곡군 석전면 증지리), 성주의 무계창(경북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양산의 감동창(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사천의 장암창(경남 사천시 축동면 구호리)에 전세곡을 납입하였다가 거기에서 낙동강 수로와 남해·서해안의 해로를 통하여 한양으로 이송하였다.

1760년(영조 36) 마산창(좌초창: 경남 마산시 남성동)과 가산창(우초창: 경남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을 설치하기 전까지 세 곳의 나루는 전세곡의 집산지로서 번창하였다. 임운을 통하여 전세곡을 운반하는 것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자, 1760년에 마산창과 가산창을 설치하고 관선으로 전세곡을 운반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765년에 낙동강 수로를 이용한 전세곡의 운송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삼랑진에 후조창을

별도로 설치하였다. 이후 이를 기반으로 삼랑진은 낙동강 하구의 대표적인 상업포구로 성장하였다.

이밖에 조선후기에 각 고을의 전세곡을 싣고 출항하는 나루들이 교역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당시에 왜공읍이나 임운읍의 경우 사선(私船)을 임대하여 전세곡을 운송하였는데, 사선을 일반적으로 지토선(地土船)이라고 불렀다. 지토선은 전세곡을 싣고 마산창이나 후조창에 이른 다음, 낙동강 하구에서 어염과 해산물을 싣고 귀항(歸港)하는 것이 상례였다.

조운 계절이 아닌 경우에는 곡물을 비롯한 농산물을 싣고 낙동강 하구에 나아가고, 거기에서 어염 및 해산물을 교환하여 귀항하였다. 그것들은 객주(客主)에게 또는 갯벌장에서 판매되었다. 전세곡의 출항지로서 교역중심지로 성장한 대표적인 나루가 무계진, 동안진(경북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마수원진(경남 창녕군 유어면 부곡리), 박지곡진(경남 의령군 부림면 경진리), 강창진(경북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개산포(경북 고령군 개진면 개포리), 감물창진(경남 합천군 청덕면 대부리 및 경남 창녕군 이방면 현창리) 등이다.

조선후기에 낙동강 수로를 이용하는 상선(商船)의 운행이 크게 늘어났다. 이로 말미암아 육로와 수로가 만나는 교통의 결절점에 위치한 포구와 나루가 교역중심지로 떠올랐다. 조선후기에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면서 정기적으로 장시가 개설되었는데, 낙동강 수로교통의 요지에 개설된 장시를 들면, 무계장(무계진), 낙동장(낙동진), 지보장(지보진: 경북 예천군 지보면 마전리), 우포장(우질포: 경남 함안군 칠북면 계내리 진동마을), 수산장(수산진), 상포장(우질포(상포):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화원장(사문진: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동), 도홍장(도홍진: 경남 창녕군 남지읍 홍정리), 신촌장(신촌진: 경남 창원

시 북면 하천리), 읍지장(경남 합천군 덕곡면 읍지리) 등이다. 특히 읍지리는 낙동강과 회천이 합류하는 지점으로서 옛 기록에 읍지장이 서는 날에 어염을 실은 상선이 즐비하였다고 하며, 경상도 지역에서 성행한 가면극인 오광대놀이가 여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19세기 후반에 낙동강 수운을 통한 상선의 통행이 급증하자, 선박과 화물 등에 통과세를 부과하는 관행이 나타났다. 대체로 상선의 왕래가 빈번하여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에 통과세를 거두는 수세소(收稅所)가 설치되었는데, 양산의 원동, 구포, 물금, 용당 및 밀양의 수산, 명리(명례: 경남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영산의 임해진(경남 창녕군 부곡면 청암리), 창녕의 마수원, 초계의 적포(경남 합천군 청덕면 적포리), 고령의 개산포(개산진), 대구의 화원진(사문진) 등이 바로 그에 해당한다.

조선후기에 육로를 통한 운송체계도 발달하였지만, 그러나 철도가 부설되기 이전 시기에 많은 양의 화물을 싣고 운송할 수 있는 수운이 훨씬 더 선호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선박들이 정박할 수 있는 포구나 나루에서 물물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1905년 경부선의 개설 이후 낙동강 유역에 위치한 포구와 나루는 수운을 이용한 화물 운송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대부분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근대에 들어 철도를 비롯한 육로교통이 크게 발달하면서 낙동강 수운은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이 때문에 조선후기에 번창하였던 낙동강 유역의 포구와 나루는 점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고, 현재는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더구나 옛 포구와 나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료나 사람조차 점차 찾기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 단계에서 그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향후에 그에 관한 연구 조사가 더욱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낙동강 유역에 위치한 포구와 나루뿐만 아니라 낙동강 수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급하게 요청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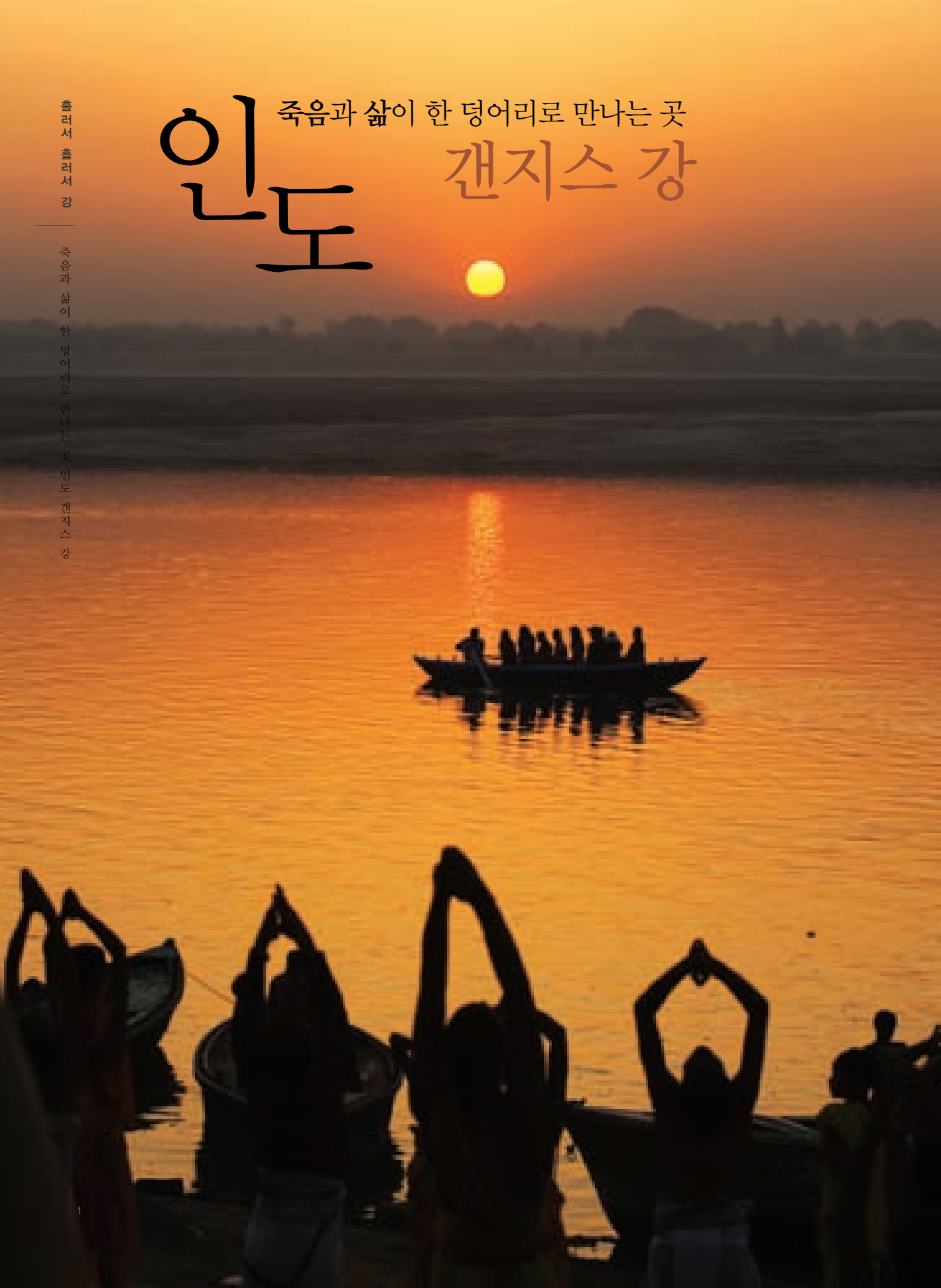
전덕재 경주대 문화재학과 교수

흘러서
흘러서
강

죽음과
삶이
한
덩어리로
만나는
곳
인도
갠지스
강

인도

죽음과 삶이 한 덩어리로 만나는 곳
갠지스 강





이곳 사람들이 갠지스를 강가 (Ganga)라 부르고 있듯이, 무거운 짐 다 부러놓고 편히 쉬게 하는 어머니인 '강가 여신'입니다. 갠지스 강으로 향하는 길은 신과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길이며, 강물에 몸을 담그는 순간, 신과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인들에게 갠지스강은 강이 아니고, 신입니다.

강물에 몸을 담금으로써
신과 하나가 됨을 느끼는 사람들



1. 갠지스 강의 일출(요가하는 학생들 사이로 해가 솟아 오르는 모습)
2. 화장터의 모습
3. 강물에 몸을 담금으로써 신과 하나가 됨을 느끼는 사람들
4. 뿌자의식이 끝나고 디아를 강물에 띄우고 있습니다
5. 가트의 전경
6. 인도에서 중요한 자원중의 하나인 소똥을 관리하는 여인들의 모습
7. 가트의 전경(요가하는 학생들과 벨래터와 화장터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8. 갠지스 강에서 빨래를 하고있는 도비알리들의 모습
9. 갠지스 강을 수영장 삼아 물놀이 하는 아이들

갠지스 강은 인도인의 삶의 터전인 동시에 죽음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가트의 모습
기도를 올리는 사람,
목욕을 하는 사람,
빨래를 하는 사람 등과
보트들이 얽혀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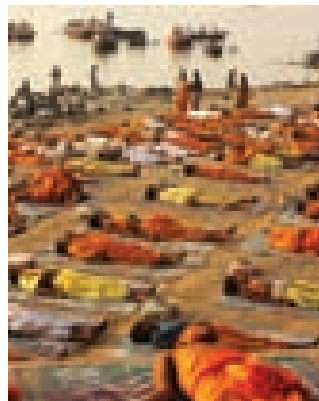


인도인들은 이 어머니 강에서 목욕을 하면 자신의 지은 죄가 씻겨지고, 죽은 뒤 화장해서 갠지스 강에 뿌려지면

윤회(輪廻)를 벗고 해탈(解脫)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때문에 '성지' 갠지스 강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순례객들과 신신들로 늘 붐비며, 가트(Ghat)라 불리는 이 목욕장은

강물에 닿아 있는 긴 돌계단으로 이 돌계단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태우는 화장터로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흘러서 흘러서 강

죽음과 삶이 한 덩어리로 만나는 곳 인도엔젠시스강

어린이를
목욕 시켜주며
즐거워하는 가족



갠지스 강 건너편에서
키우고 있는 소들이
더위에 물을
찾습니다



빨래하는 사람과 목욕하는 사람, 이미 죽어 한
줌의 재가 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곳, 갠지스강.

하루 종일 망자의 재가 뿌려지고 타다 남은 시
체며, 화장이 금지된 시신들이 혼한 나뭇가지치
럼 떠다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성호민순홍(星浩明順弘) 사진가



책 수집가 안정웅의 오거지서(五車之書)

한국 서지학(書誌學)의 개척자들

어떤 분야에서든지 관련되는 문헌, 자료를 찾는데
책만큼 유용한 수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단편적인 것을
찾을 때는 바로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인터넷에서 찾는 것이 시간과 경비 등의
절약 면에서 책보다 나은지는 모르지만 내용의 깊이,
보다 많은 자료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책과는 비교가 안 될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전 세계를 통틀어서 지금까지 발간된 책이
모두 얼마나 될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지금도 하루밤만 자고나면 책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니까
가히 천문학적 숫자라 하겠다.

이렇게 많은 책 중에서 자기가 연구에 필요한 문헌이나
자료가 어떤 것이냐를 잘 알기 위해서 또 좋은 책이
어떤 것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책의 선택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서지학적 지식이다.
필자도 일찍이 책을 수집한답시고 창간호 개인 전시회도
가졌고 또 책을 모으는 사람끼리 동호회도 만들어
연합 전시회를 갖곤 했다.

그때 전시와 관련 신문이나 잡지에서 취재 요청이 와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신문보도나 게재되는
잡지의 글에 여지없이 서지학자라고 소개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학문의 깊이 없이 그런 호칭을 받은 것이
낮 뜨겁고 경솔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책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한 것도 없고 학문적으로
연구한 것도 없는 상태에서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말만 믿고 마구 떠들어 된 꼴이다.

필자는 책 수집을 오래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책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책마다 그 책이 갖고 있는 의미, 내용, 가치 등
그 책의 족보를 얘기할 수 있게끔 되었다.

그 알량한 지식만 믿고 당구삼년괘풍월(堂拘三年吠風月)의
속담을 방어막으로 서지학자 행세를 한 것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다.

서지학은 책을 대상으로 하여 그 형태와 재료, 용도, 내용, 변천 등을 과학적이며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좁은 뜻으로는 책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학문을 말한다. 도서학 이라고도 하며 중국에서는 목록학 또는 문헌학이라고도 한다.

서지학의 역어인 비블리오그래피(bibliography)라는 근세 유럽어는 그리스어의 책을 의미하는 비블리온(biblion)과 기술(記述)을 의미하는 그라페인(graphēin)으로 이루어졌다.

언어가 없는 곳에 문법을 생각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책이 없는 곳에 서지학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서지학에 앞서서 그것을 성립시키는 것이 책의 존재이다.

그러므로 서지학을 올바르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책 그 자체의 본질을 밝혀내야 하는 것이다.

프랑스인 G.F 드뷔르가 출판한 <서지교정(書誌教程) 7권 1763~1768> 이 서지학의 선구적인 저술인바 과학으로서의 서지학은 19세기말에서 20세기 전반에 걸쳐 주로 영국의 자연과학자들에 의해 뿌리를 내렸다.

그중 영국의 서지학자 S.게이즐리는 1932년 10월 영국서지학회 회장 취임기념 강연에서 서지학 성립의 5단계를 ①수집(蒐集) ②열거(列舉) ③기술(記述) ④분석(分析) ⑤결론(結論)으로 나누었다.

그 궁극의 목적은 정보전달에 즈음하여 물질적 수단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여 기원(起原)·역사 및 본문(本文)에 관한 여러 문제를 될 수 있는 한 해결 하는데 있었다.

그러면 한국 서지의 역사는 어떠한가?

금속활자 발명 등 뛰어난 인쇄술로 출판의 역사는 오래 되었지만 서지학을 성립시키는 책의 출판은 시대를 달리하며 많은 제약을 받아들임에 따라 학문으로서의 서지에 대해서는 미미한 상태였다.

그나마 조선조와 근대에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으면서 책관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한 수준이었다.

조선의 도서 목록에 대해서는 육당 최남선이 그의 저서 <조선상식문답속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 했는데

근대의 한국서지에 대해서 단편적이거나 정리해 놓은 것이라 하겠다.

“조선의 도서에 관한 내외공사대소(内外公私大小)의 갖가지 목록을 죄다 열거하자하면 일부(一部) 서지학을 따로 만들어야 할 지경이니가 여기 그러할 겨를과 필요가 없거니와 상식상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를 들어 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옛날 홍문관과 하대(下代) 규장각 장서 목록 같은 것은 아랑곳 말고 얼마를 서지학적 체재(體裁)로 만든 도서목록의 가장 오래 된 것은 인조조(仁祖朝) 김휴(金休)의 해동문헌총록(海東文獻總錄)이니 원본이 얼마인지 모르되 시방 일권(一券)이 전할 뿐이요 그 목록에는 각 방면에 걸쳐서 약 650종의 서적을 수록 하였습니다.

그다음 정조조(正祖朝) 서유구(徐有矩)의

누판고(鑪板考 6冊)이니 이것은 그 이름과 같이 그 전부터 있어 내려오는 중외(中外) 각 지방에 산재한 책판목록에 의거하여 사부서(四部書)로 무릇 598종의 내용의 대개(大概)로부터 소입(所入)의 지수(紙數)까지를 기재하여 체제가 자못 정제(整齊)한 것입니다.

최근의 것으로는 고종조(高宗朝) 양재건(梁在?)의 인문연원고(人文淵源攷 5卷)가 있으니 이것은 찬자본위(撰者本位)로 각각 그 저서를 집록한 것이 특색입니다. 외국인의 손에 된 것은 불국인(佛國人)

쿠랑(Maurice Courant 1865~)의

조선서지(Bibliographie Coreenne 1894~1901)

4책(冊)이니 원론(原論), 보편(補遍), 부록(附錄)을 합하여 합(合) 3,820여종(그중에 중국서, 신문잡지도 들었다)을 해설하여 유명하며 일정시대기미(日政時代己未 1919 대정 8년) 3월 출판의 조선도서 해제에는 약 2,800여종에 대한 내용 및 찬자(撰者)연대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종류는 많지 못하지만 내용으로 재미있는 것은

일본인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 1868~1942)의 조선의

판본이라는 것이 있으니 이것은 판본 중심으로

조선서지개설을 시(試)한 것인데 그 본문에도 유익한 말이 많거니와 더욱 참조 서목해설 190항에는 더욱 중요한 시사(示唆)가 많이 들었다.”

상기와 같은 최남선의 기술은 해방이전의 한국의 서지로서는 더 좋은 기술을 바라기 어려울 정도로 잘 정리해 놓은 것이라 하겠다.

광복 후에 안춘근, 천혜봉, 윤병태 등의 많은 학자들의 연구와 더불어 서지학회가 창립되는 등 학문으로서의 서지학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중에서 출판학과 서지학연구에 평생을 바친

남애 안춘근(南涯 安春根 1926~1993)은

미답(未踏)의 영역이던 국내출판학의 기틀을 세운 선구자이자 서지학자, 고서수집가, 애서운동가다.

국내출판학 저술 1호인 출판개론(1963년)을 비롯해 출판학관련 16권 한국서지학(1969년) 등 서지학 관련 12권 일반교양서와 수필 20권 등 48권의 책을 썼다.

그의 <한국서지학>은 한국서지학의 기초적, 골격적 저작이라 하겠으며 연구 미정의 분야에 파고들어 최초의 틀잡이를 해놓은 저자의 공은 길이 기억될 것이다. 안춘근의 저서 <독서의 지식>중에 독서에 관한 글이 있다.

“책은 사람을 기르는 정신적인 영양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적당한 책을 골라서 알맞게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살기위한 방법일뿐 별다른 지장이 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언제나 나는 꾸준히 독서하는 사람을 보면

그 얼굴에서 아름다움과 젊음과 지혜로움을 발견할 수가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평생소원이다” 라고 썼다.

그는 평생 동안 책을 가까이 두었고 그만큼 책을 사랑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한국의 서지를 논할 때 프랑스를 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그문제의 중심에는 2명의 서지학자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프랑스에 귀화한

재불 서지학자 박병선(1928~)과 프랑스 서지학자 모리스 쿠랑(1865~1935)이다.

박병선 박사는 1928년 서울에서 태어나 1955년 홀로 프랑스에 건너갔다.

소르본대학과 프랑스 고등교육원에서 각각 역사학과 종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67년부터 13년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근무하면서 보관된 장서를 모두 뒤져 1967년 세계 첫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을, 1975년에는

외규장각 의궤(儀軌) 191종 297권을 발견해 세상에 알려 국내에 문화재 반환운동의 씨앗을 뿌린 주역이다.

이뿐 아니다. 1866년 병인양요 관련 사료를 찾아내

500여 쪽씩 두 권으로 정리 하였으며 2006년 한불수호조약 체결 120주년을 전후해선 프랑스는 물론

국내 한불관계 사료를 찾아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를 정밀하게 복원해 왔다.

또한 1866년 10월 강화도에서 외규장각 의궤를 약탈한 프랑스 극동함대사령관 로즈 제독이 해군 대신에게 보고한 공문서와 기타 병인양요 관련 보고서를 번역해



500여 쪽으로 분류했고, 프랑스측 참전 군인들이 신문 및 잡지 등에 발표한 글과 논문, 보도문 등과 함께 「일성록」 등 한국측 사료들을 모아 또다시 500여 쪽으로 정리해 왔다.

1972년에는 연구 때문에 국적을 프랑스로 바꿨지만 한 번도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그는 “프랑스에선 마치 역적처럼 취급하며 미워했고, 한국에선 문화재 반환을 촉구하는 저를 귀찮은 존재로 여겼지만 양심의 가책을 받은 일이 한 번도 없다.”며 “이들 사료에 대한 연구는 제게 주어진 운명으로 알고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고 했다.

그가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큰 보람으로 꼽는 일은 「직지심체요절」이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그는 1972년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유네스코 후원으로 열린 ‘직지심체요절’ 전시 개막행사에서 독일 구텐베르그가 인쇄한 성서본에 78년 앞서 1377년에 인쇄한 「직지심체요절」이 금속활자로 인쇄됐다는 사실을 입증해 낸 것이다.

한국서지를 저술한 모리스 쿠랑은 1890년 5월부터 1892년 2월까지 1년 10개월 동안 주한 프랑스 공사관에서 서기관 겸 통역관으로 주재 했다.

그의 상사 플랑시 공사(公使)는 조선왕실이 신뢰하는 외교관 이었으며 극동의 예술품과 고서적을 수집하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당시 쿠랑에게 유일한 낙이라면 저녁 식사 후 상관 플랑시와 나누는 대화였다. 플랑시는 동양어학교

교수들이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나라에 대해 자신이 와서 직접 체험하고 발견한 바를 후배에게 알려주고, 그가 수집한 조선서적을 소개하였다.

바로 이 대화 중에 서양인에게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조선 문학의 목록, 나아가 하나의 서지(書誌)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이 싹텄던 것이다. 두 사람이 한국문헌의 서지목록을 분담하여 만들던 중에 일본으로 전근을 가게 된 플랑시는 쿠랑에게 혼자 이 계획을 완성하도록 권유하였다.

쿠랑은 플랑시가 제시한 문헌을 비롯하여 서울의 프랑스 공사관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의 선비들, 그리고 당시 한국 천주교회의 서울 교구장인 구스타브 뒤텔(Gustave C. M. Mutel, 1854~1934) 주교의 도움을 받았다.

쿠랑의 가장 큰 공적은 한국의 도서 목록을 번역, 소개한 것이 아니라 플랑시가 개척한 길을 밟아나간 것이다. 쿠랑은 서울의 노상서점, 세책가(貫冊家), 사원의 서고(書庫), 개인 소장처 등을 뒤져 당시의 지식층이 무시하고 사서나 서지학자도 간과하던 수많은 도서를 찾아내 해설을 덧붙였다.

나아가 그는 전임(轉任)된 후 베이징에서도, 휴가로 파리에 돌아가서도, 또 그 후에 옹진 도료에서도 쉬지 않고 계속 연구하였다.

휴가 기간에는 유럽에서 병인양요 때 약탈된 외규장각(外奎章閣) 문고본이 포함된 파리국립도서관 장서, 기메 박물관(Musee Guimet)에 소장된 바라(Varat) 문고, 대영박물관도서관의 장서를 조사 하였다.

이러한 열정 어린 지적 탐구 결과, 그가 도료의 프랑스 공사관에서 서기관 겸 통역관으로 있었던 1894년에서 1895년 사이에 <한국서지> 제1권, 제2권이 발행되었다. 그 이듬해인 1896년, 그가 천진(天津) 영사관에 재임하고 있을 때 제3권이 발행되었다.

쿠랑은 그 뒤에도 연구를 계속하여 본국에 귀환 후인



1901년 보유판(補遺版: Supplément a la Bibliographie Coreenne)이 나오게 됨으로써

〈한국서지〉 전 4권의 완성을 보게 되었다.

쿠랑은 이 책에서 고려시대의

〈상정고금예문(詳定古今禮文)〉에서 한말의

〈한성순보(漢城旬報)〉에 이르는 도합 3,821종의 한국 도서를 교회(敎誨), 언어(言語), 유교(儒敎), 문묵(文墨), 의범(儀範), 사서(史書), 기예(技藝), 교문(敎文), 교통(交通)의

9부문으로 분류한 후, 이에 대한 상세한 서지학적 해설과

문화사적인 논평을 가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서지〉는 한국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빼먹어서는 안 될 저서가 되었다.

〈한국서지〉보유판인 제4권에는 주한대리공사로 근무한

적이 있던 플랑시 소장의 도서목록이 실려 있으며,

이로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다.

수천 종의 한국 도서 목록이 기록되어 있는 〈한국서지〉는

한국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그가 밝혀준 한국의 사상과 문학의 세계를 맛보기 위해서는

〈한국서지〉의 ‘서론’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쿠랑이 걸어간 길과 그 결과물은 오늘날 우리 도서관인과

문헌정보학도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

나아가 자부심과 애정을 심어줄 것이다.

원래 서지학에서는 고서를 다루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고서를 바로 이해 한다는 것은 서지학의

거의 절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고서란 그저 오래된 낡은 책으로 알기 쉽다.

그러나 모든 학문의 뿌리가 되는 고서를 바로 알지 못하고서는 보다 새로운 학문의 정립이 불가능 해진다.

우리나라의 고서는 시련이 많았다. 수많은 전란으로 없어져 버리고 귀중한 것들은 외세에 의해 약탈을 많이 당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서지학 연구에도 많은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약탈 귀중 도서 중 반환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에는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와

경술국치 이후 일본이 약탈해간 궁내청도서관에

보관중인 조선왕실 도서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연대는 2007년 약탈 물건을

정부 재산으로 편입하는 프랑스의 관련법령이 잘못됐다며 외규장각도서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심리 과정에서는 프랑스 정부 대변인이 답변서에

처음으로 해당유물 취득과정에서 약탈이라는 용어를 써

판결에 영향을 줄 것인지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지난해 12월24일

프랑스 파리 행정 법원은 문화연대의 반환 1심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의 기각 이유는 취득상황과

조건은 국가 재산이라는 사실에 영향을 줄 수 없고

병인양요가 일어난 1866년 국제규범이 완전히 성립했다고

보기 힘들며 그동안 체결된 국제협약에 프랑스가

모두 가입하지 않아 적용이 불가능하고 반환여부는

법원이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점 등 이었다.

취득과정의 적법성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국유재산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만 내세운 것이다.

외규장각(外奎章閣)은 국방상 안전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자료들을 관리할 목적으로 1781년에 세워졌다.

외규장각은 1776년 창덕궁에 설립된 규장각의

분소와 같은 성격을 띠게 되었고 병인양요로 불타

없어지기 전까지 1천7종, 5천67책이 소장돼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외규장각은 1866년 병인양요가 발생하여

프랑스 함대에 의해 궁전과 외규장각 도서들이 불에 타

없어지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또한 프랑스군대는 은궤, 어새 등과 함께 외규장각

도서 중 의궤류와 고문서들을 약탈해갔다.

프랑스가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는 지난 75년

국립도서관 사서로 일하던 박병선씨가

베르사이유 별관 창고에서 처음 발견, 세상에 알려졌으며,

92년 7월 주불 한국대사관이 외규장각 도서반환을

요청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1993년 9월 서울에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과 미테랑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에서 '교환 기본원칙' 이 합의 됐고, 이때 한 권이 '반환' 됐다.

이는 우리나라 고속철도 사업초기에 프랑스의 TGV(떼제베)를 수주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측은 무조건적인 반환을 주장하는 한편 프랑스 정부 측은 외규장각 도서를 국내로 반환하는 대신에 국내에 소장 중인 비슷한 가치를 지닌 우리 문화재를 대신 프랑스에 내주는 '등가교환' 을 내세워 협의를 했으나 약탈당한 문화재를 상호 대여 형식으로 돌려받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우리 문화계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정부와 민간의 17년 넘는 끈질긴 노력에도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미테랑 정부에서 문화부장관을 지냈던 자크랑 상원의원이 과거사에 대한 속죄 차원에서 전격 반환을 주장하고 나섰다.

외규장각 도서 반환과 관련해 사르코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단 한권을 제외하곤 144년이 지나도록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외규장각 도서를 시민단체의 끈질긴 노력에 힘입어 금년 11월 G20 정상회의의 때 두 나라 정상회담에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설국치 100주년을 맞은 올해 일본궁내청(宮内廳) 도서관인 쇼로부(書陵部)가 소장한 한국고서중 반환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661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지학자인 박상국 한국문화유산 연구원장은 쇼로부가 소장한 한국고서는 총 639종 4,678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반환대상이 661책임을 확인 했으며 문화재청에 보고 했다고 말했다.

쇼로부는 일본 황실의 보록(譜錄), 실록(實錄), 도서(圖書), 공문서(公文書), 능묘(陵墓) 등의 업무를 관리하는 궁내청 부설 도서관으로, 메이지(明治) 17년(1884)에는 즈쇼료(圖書寮)라는 이름으로 출범했으며, 쇼와(昭和) 24년(1949)에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2001년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곳에는 많은 한국 관련 자료를 소장했으며, 그중 한국 금석문 탁본집은 대체로 다이쇼(大正) 시대(1912-1924)에 제작됐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고 했다. 나아가 이곳에 소장된 한국 고서는 거의 전부가 국내에서는 희귀할 뿐만 아니라 전집을 갖췄다는 점에서 서지학은 물론 역사·지리·문화·외교·금석학·서예 등 각 방면 연구에서 기초자료 역할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꼽힌다.

이곳 소장 한국 전적 중 163종 852책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회의에 따른 문화재반환 협정에 따라 국내로 돌아왔고 현재 남아있는 한국본 4천678책은 판본(활자)별로는 ▲동활자 123종 ▲철활자 7종 ▲신연활자본 7종 ▲목활자 37종 ▲목판본 209종 ▲필사본 54종 ▲의궤 79종 ▲탁본 110종 ▲지도 2종 ▲사진첩 8종 ▲영인본 3종이다.

이에 따라 경술국치 100년 주년을 맞아 쇼로부 소장 한국도서의 반환이 추진될지 주목된다.

책은 소중한 것이다.

책속에 길이 있다 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책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

우리의 지식을 후대로 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이다.

그중에서도 우리의 정신문화의 부피를 그대로 말해주는

고서들, 그것은 우리에게 남은 위대한 유산이자

오랜 세월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왔고

또 그 존재이유를 말해주는 것들이다.

하루빨리 약탈된 우리의 고서들을 반환받아

한국의 서지학을 풍요스럽게 만들어야겠다.



안정웅 성결대학교 객원교수

일식의 전환, 진화하는 그림들

천가지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

천가지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



그림책 상상, 상출판사,
그리고 천상현 대표

상수역 근처 모퉁이를 따라간다.

차 한 대도 겨우 지나갈 만큼의 골목을 지나 문득 마주친 곳,
바로 상출판사이자 그림책 상상 카페이자 그림책의 공간이다.

반지층을 포함해 3층 건물이지만 위압적이거나
높아 보이지 않는다.

토끼의 뒤를 쫓았던 앨리스처럼 성큼 문을 열고 들어선다.



그림책의 상상이 놓인 자리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이다. 한눈에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사방 책장의 책이다. 평소 보던 책들과는 사뭇 다르다. 컬러도 컬러지만 각기 다른 책의 사이즈 때문에 삐죽삐죽 침엽수림 같은 착각마저 든다. 이곳은 상출판사의 천상현 대표가 운영하는 카페다. 그림에 관심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한번쯤 보았을 법한 반년간지 『그림책 상상』도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일반인 대상이 아닌 전문가나 작가 출판 기획자 등을 타깃으로 하는 전문 문예지다.

이곳에서는 국내 창작그림책과 국외 창작그림책을 볼 수 있고 간단한 전시와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다. 3,000여권의 그림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아나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즐기는 작가성 위주의 책이다. 길지 않은 글이라 찬찬히 읽어도 금방 읽게 되지만 여운은 길다.

소통으로서의 매개물, 그림책

“보통 그림책 하면 영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의 작은 분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실제로 그런 시기를 지나왔구요. 교육용 책의 삽화가 대부분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외국의 검증된 창작그림책이 출판시장에서는 소위 잘 나가지만 지금은 실력 있는 우리나라 창작그림책 작가도 꽤 많답니다.

글의 보조도구로 삽화에 머물던 때와는 달리 그림을 중앙에 두고 그림 안의 메시지에 집중합니다. 용기를 주거나 희망을 주거나 작가의 손 안에서 탄생되지요.” 삽화 위주의 책에서





진화한 그림들은 그 말을 깨고 스스로 서고 있다.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유도하는 것이 책을 만드는 사람의 일이라고 천상현 대표는 말한다.

“그림책 작가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며 어떤 것을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내요. 이들은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은 그림을 읽어요. 그 과정에는 책이라는 매개가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담당하는 거죠.” 아이의 책을 고르며 엄마가 아이의 책을 읽게 되고, 책을 통해 작은 공감대가 생기는 거다. 책은 그런 면에서 소통의 간단한 도구다.

하나의 주제가 천 가지 상상으로, 또 현실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천 가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게 그림책이거든요. 작가의 느낌에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따라 다양한 그림들이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언어의 구획보다 더 자유롭기도 해요. 법칙도, 계획도 없이 할 수 있는 게 그림 아닐까요.” 그림책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넘어서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기를 꿈꾼다는 그다. 전시의 형태로 보여질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린 작가와 독자가 직접 만나 대화를 하는 방법도 있다.

하나의 주제가 사람을 만나 그림이 되고, 그 그림이 소통의 다리가 되는 거다. “창작그림책이 상업적으로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좋은 매개체거든요. 지역문화와의 연계도 무궁무진하고 지역과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림은 모든 것을 초월하니까요. 요즘 우리나라는 다문화 문제가 심각한데 그림을 통해 문화를 알리고 글을 배우게 하는 것, 또한 그 안에서 끊임없이 감정의 소통이 일어나구요.”

“그림책 작가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며

어떤 것을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내요.

이들은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은 그림을 읽어요.

그 과정에는 책이라는 매개가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담당하는 거죠.”

아이의 책을 고르며 엄마가

아이의 책을 읽게 되고, 책을 통해

작은 공감대가 생기는 거다.

책은 그런 면에서 소통의 간단한 도구다.



천상현 대표

바보장사꾼의 상상

단순히 그림책을 만드는 것을 넘어 천상현 대표는 상출판사의 대표로써 매년 볼로냐 아동도서전에 나가서 국내 창작물을 소개하고 외국의 단체와 기획자와 교류하는 일도 하고 있다. 또한 CJ그림책축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기도. 제작년부터 CJ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그림책창작자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인데 국제공모전과 좋은 초청작가 전문가를 모시고 국내 전시를 통해 활성화시키고 있다.

작년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에서 전시했고 올해 12월에도 결과 전시가 잡혀 있다.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교 창작그림책반(포스트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일도 한다. 창작그림책 그리기를 지망하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 좋은 창작자들이 배출되어 현재 많은 출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국제아동도서협의회한국위원회 (KBBY) 위원도 맡고 있다.

“외국에서는 창작그림책 시장이 안정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럴 날이 오겠죠.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어렵지만 그래도 길이 조금씩 길이 열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작가들과 소통하고, 독자들과 소통해야 하는 평생의 숙제를 저는 즐겁게 안고 가는 거죠.”

책을 만들어 파는 사람의 입에서 책을 통해 소통하고 싶다는 다소 어이없는 이야기를 듣는다. 남들이 들으면 바보 장사꾼일지 모르겠지만 그의 의지에서 빛나는 건 단 하나다. 그를 이끌어 가는 그의 상상. 그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의 뒤를 주목하고 따를 일이다.





미술치료의 힘, 진짜 똥과 그림 똥

어찌됐든,
마음의 주인인 은별이는
그림으로 마음을 비출 기회가 있었고,
마음도 자신의 모습을 그림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림을 통해
마음을 발견 한다는 것은,
하나의 '말' 과 '심장똥' 을
함께 겪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맞습니다. 그림은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마음이 그림으로 그려지길 원합니다. 왜일까요? 궁금해서죠. 자기모습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말이죠. 심지어는 그 마음의 주인도 마음을 모르니, 얼마나 자신을 보고 싶었을까요? 그만큼 답답해진 마음은 그림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의 주인이 화실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마음은 그려지는 그림을 향해 자신을 비추습니다.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다면, 마음은 이제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주인도 마음을 만났겠지요. 이유는, 그림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음의 주인은 마음을 아주 잘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인 속에 있던 마음은 그림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죠. 자신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던 마음은, 어느 부분이 조금은 커져있고, 어느 쪽이 작아져 있는지 알게 됩니다. 단지,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의 차이일 뿐인데, 마음은 엉뚱하게 커진 부분과 터무니없이 작아진 부분에 균형과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앓'은 마음의 주인에게 무언

가에 대한 시각을 암시해주고,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세상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도무지 마음의 주인도 마음을 알 수 없었던 귀여운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하려 합니다.

제가 미술치료 박사과정 중에 화실을 할 때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을 갓 올라간 여학생 은별이가, 하루는 얼굴을 찌푸리며 화실에 들어옵니다. 아이는 평상시와 달라 보였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모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는 무척 크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은별이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이는 말합니다. "새 담임선생님이 정말 무서워요."라고요. 2학년이 되어 만나게 된 새 학년 담임선생님이 무척 무섭고 실망스러웠나 봅니다. 실망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영킨 실타래가 되었을 은별이가 가여웠습니다. 학교에서부터 화실까지 걸으며 내내 저런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을 생각하니, 보통 이상의 심각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이와 오늘 화실에서 하려고 계획했던 것들은 이미 멀리 달아나 버리더군요. 아이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무서워? 얼마나 무서운데?"라고요. 아이는 이래저래 설명을 하더군요. 말할 때는 입도 쪽 찢어지고 눈도 무섭고 등등...말하는 내용대로 상상한다면, 선생님의 모습이 참 우스꽝스럽겠더군요.

웃음을 참으면서, 아이에게 그 선생님을 만들어 보면 어떠할지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별리라는 듯 흥미가 없던 아이에게, 그림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똥과 그림 똥, 영화 속 무서운 악당과 악당만화'가 다르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똥! 그렇게' 뜨더군요. 그리고 엄청난 미소로 무언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쯤이면 이제 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의 머리속에는 수많은 재료들이 떠오르게 되어 있죠. 아이가 표현하고자 하는 크기와 규모에 맞도록 재료를 권하기도 왔습니다. 크기는 결국 2학년인 은별이 만한 크기로 정했어요. 몇 가지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기도 하며 1시간 30분 동안, 아이는, 그 무섭다는 선생님을 촘촘히 어그적거리며 만들어 냈습니다.

세상에 뿔 달린 사람이 있습니까? 드라큘라 이빨에 손톱이 손가락보다 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는 선생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놀란 마음이 만들어낸 과장된 선생님을 발견하고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작품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쉽없이 칠하고 자르고 묶으며 작업하는 모습은 그 언제 보다도 호기심 가득한 몰입이었습니다. 시간과 아이의 마음과 아이의 말이 흘러갑니다. 아이가 이러한 순서로 말을 흘러 보냅니다. “이번 담임선생님이 싫어요.” “무섭고 욱도 잘하고 화도 잘 내요.” “아이들이 다 실망해요.” “이빨은 이렇게.” “이곳에는 이런 색깔이 어울려요.” “손톱 색깔은 이거였어요.” “뿔이 이렇게 생겼어요.” “눈은 정말 크고 예뻐요.” “근데, 쪽 찢어졌어요.” “웃겨요.” “하!하!하!” “재미있어요.” “안무서워요.” “괜찮아요” “안녕히 계세요”

제가 아는 은별이는 원래 참 건강한 아이였답니다. 이날, 괴로움에 휩싸인 은별이의 모습은 뜻밖이었습니다만, 평범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괴로움이 생겼

다가 사라질 수는 있는 법이죠.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을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기억해보면 누구라도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 때 그랬죠.

저의 초등학교 5학년 담임선생님은 나에게 가장 행복한 1년을 만들어 주셨지만,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에 대한 저의 생각은 스스로를 가장 불행한 1년으로 만들게 했었습니다. 등교는 늦게 하고, 수업시간에는 머리가 아프고, 참 다뭇해 조퇴를 하고 교문을 나오면 머리가 맑아지던 1년간의 긴 시간은 참으로 오랜 진통이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선생님을 탓하던 그 시절, 저에게는 전쟁그림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림은 항상 왜곡된 마음으로부터 내 자신을 벗어나게 해주는 도구였습니다.

그 당시 제 곁에 치료사가 있었고, 은별이와 같은 경험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화실을 나서는 은별이의 뒷모습은 언제나 볼 수 있었던 은별이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가 이후로 학교에 잘 적응할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은 왜일까요? 아이는 새 학년 담임선생님을 표현하기 전과 후의 정서, 인지, 행동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하루 종일, 혹은 며칠 간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온갖 괴로운 상태를 1시간 30분 만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은별이는 담임선생님 일로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선생님이 화를 내시면, 은별이는 자신이 만든 작품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푸히! 하고 웃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안 무섭다고 느끼며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무서운 선생님을 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은별이의 담임선생님이 무섭지 않게 행동했을까요? 아마도 세상은 원래대로였을 것입니다. 혹은, 은별이가 보통의 세상을 크게 과장되게 봤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마음의 주인인 은별이는 그림으로 마음을 비출 기회가 있었고, 마음도 자신의 모습을 그림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림을 통해 마음을 발견 한다는 것은, 하나의 ‘앓’과 ‘성장통’을 함께 겪는 것과도 같습니다. 은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의 여정을 위한 진통과 성장을 동시에 경험하고 헤쳐 나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쩍 자란 은별이를 어찌다가 볼 일이 생기면, ‘참 잘 자라고 있구나.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고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라고 마음속으로 떠올린답니다.

마음을 비추는 그림

미술치료라는 말이 낯설기만 하던 때와는 달리, 최근에는 어느 곳에서든 그림과 마음, 그리고 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초기에 ‘치료’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가졌던 사람들도 이제는 ‘상처’를



은별이가 만든 상상 속 담임 선생님



스스로 들어내고, 길고 오랜 진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료'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병원과 상담기관 및 복지관으로 보급되었던 미술치료가 지금은, 도서관, 학교, 유치원, 미술관, 군부대, 노인정 등의 시설까지 확산되어 도입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접해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조금씩 더 가까이 미술치료는 다가갈 것입니다.

끝으로, 미술치료를 만나기 전에, 가볍게 미술치료를 느껴 보시겠습니까? 생활 속에서 색과 형태, 공간에 대해 찾아보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삶'과 만날 수 있습니다. 1)일상에서 우리가 접하는 색, 2)일상에서 우리가 접하는 형태, 3)일상에서 우리가 접하는 공간'에 대한 의미와 자기 경험을 떠올리고 느껴보거나 글로 적어보세요.

예1-색) 어제 TV에서 해안가에 나타난 불가사리 떼들이 조개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 양식에 피해를 입힌다고 했다. 불가사리의 색은 뉴스와는 달리 아름답고 선명한 노랑에, 약간 오렌지 빛이 도는 색감이었다. 아름다운 색임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보며, 너무나도 다른 느낌이 드는 것은, 바로 환경의 파괴로 인해 해파리 떼와 불가사리 떼 등, 자연생태계의 파괴된 일면을 나타내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게 했는데, 그것은 불가사리가 가진 색이 경로의 의미로 느껴졌기 때문일까? 노란색 계열의 불가사리는 자연이 인간에게 던진 옐로우 카드가 아닐까 싶다.

예2-형태) 왜 동전은 동그랄까? 네모도 있고 세모도 있으면 재미있을 텐데, 왜 애초부터 동그렇게 시작되었을



까? 동글동글 굴러다닐 수 있으라고? 그래서 돌고 도는 게 돈이라서?

어떤 사람이 신용을 상징하는 원형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나는 돌고 도는 게 돈이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든다. 그래서 동그란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3-공간) 난 내 방 내 침대에 누워 있으면 좋아요. 내 침대는 방 모서리에 한쪽구석에 자리 잡고 있어서, 방안이 한눈에 보이거든요. 웬지 벽을 등지고 있으면 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쓸데없는 걱정이나 공포를 자주 느끼는 편이라 그런지 공간에서 시야가 확보 되어야 마음이 편해요.

근데, 공부할 때 침대에서 잘 안돼요. 시야가 넓어서, 집중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다른 이유라면 누워있어서 졸린 탓이겠조.

여러분, 색, 공간, 형태에 대하여, 삶의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발견해 느껴보세요. 다른 분들과 글을 나누시면 좋지만, 미술치료를 만날 때까지 혼자 연습하셔도 됩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마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그리세요. 그러나 그 진통의 기간이 오래고 견디기 힘들다면 미술치료사를 찾아가세요. 함께 마음을 비추는 그림이 되어줄 것입니다.



강준기 미술치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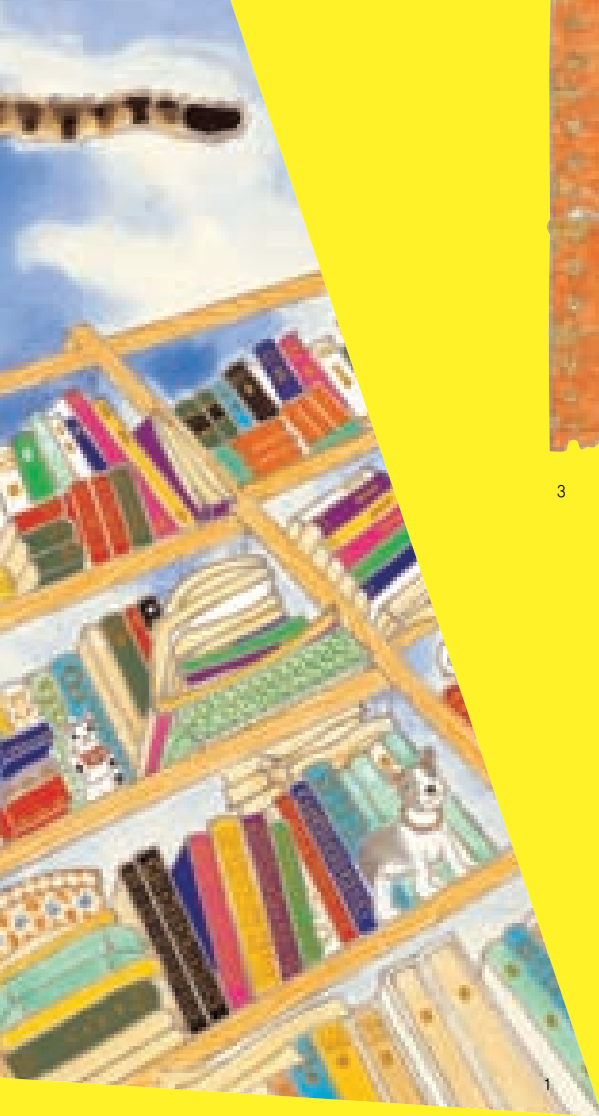


고양이와 엄마, 만희가 뛰어노는 집

창작 그림책 작가 권윤덕 인터뷰

버스가 다니는 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고개,
남색대문 앞에 선다.
대문 넘어 집은 높지도 낮지도 않다.
인터뷰 장소로 자신의 방을 선뜻 내보여주는
그림책 작가 권윤덕.
문득 그의 집 앞에서 뒤를 돌아본다.
모르는 길을 조심히 오르던 점점이 찍힌 발자국이,
날리는 눈발에 지워지려고 한다.
문이 열리고 드디어 '만희네 집'으로 들어선다.





3

권윤덕 작가의 이층집

우리 기억의 그림책은, 세계명작도서나 학습용 전집류다. 그나마 창작그림책이라고 기억하는 것은 해외의 번역물이 전부였다. 흔히 학습용 도서, 사보 등에서 쓰이는 그림은 기획자의 의도가 절대적으로 반영된 그림이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한국의 그림책 시장은 사뭇 달라졌다.

글과 그림의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던 예전과는 달리 그림 그리는 사람의 의도와 생각이 반영된 작품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소위 완성도 있는 창작 그림책들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이로 인해 그림책 시장은 작가 중심의 출판물을 만들고 발굴해내었으며 현재도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 10년의 줄기에서 여러 송이의 꽃을 함께 피운 그림책 작가 중 권윤덕 작가를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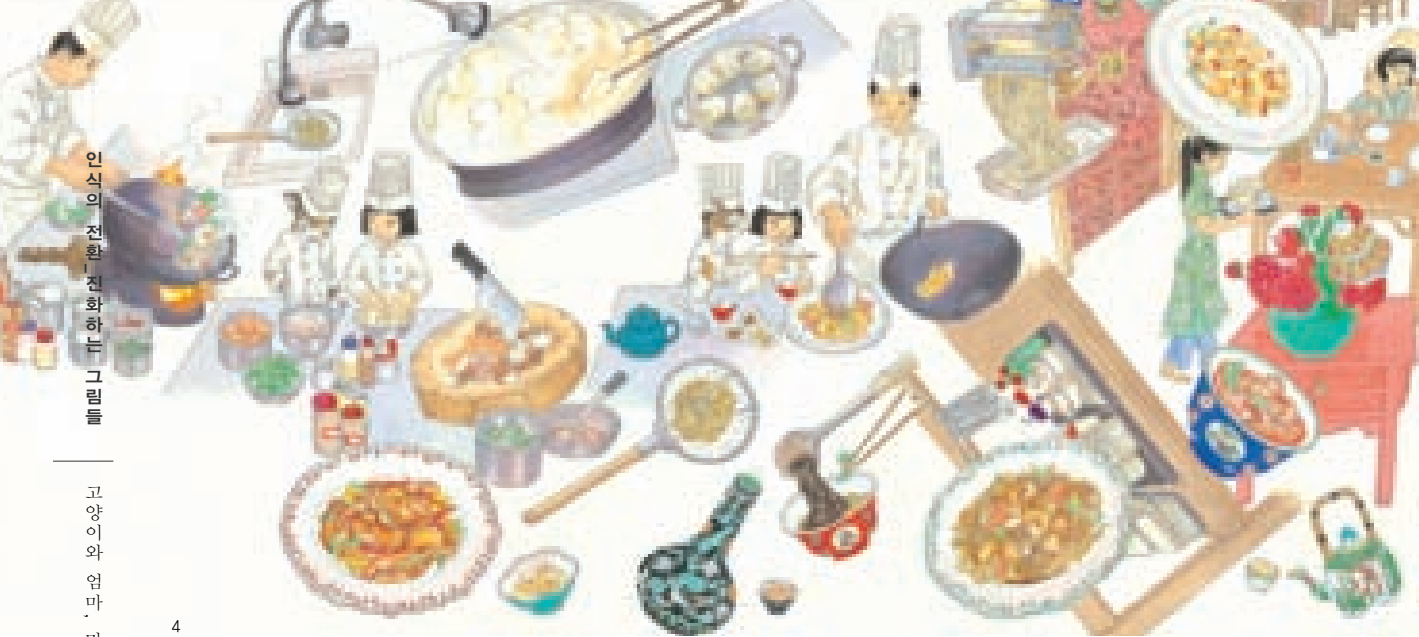
누군가 만든 텍스트, 콘텐츠를 접하다가 막상 그 누군가를, 심지어 그의 집을 들여다보는 일은 짜릿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리 크지 않은 2층집에 사는 권윤덕 작가는 미리 과일을 잘라 접시에 담아두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소녀, 카탈로그를 만나다

그의 그림책이 그려진 곳이라기에는 작고 별스럽지 않은 공간이다. 권윤덕 작가는 익숙한 책상에 앉아 그의 그림책 이야기로 서두를 땀다.

“저 어렸을 때야 그림책이라고는 전집류뿐이었죠. 그것도 재미있게 읽었지만 정말 기억에 남는 건 다른 거예요. 제 고향이 경기 오산이거든요. 아버지가 주유소를 했어요.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에 기름을 납품도 하고요. 미군기지에서 가져온 상품 카탈로그를 정말 재미있게 봤어요. 총이며 가방이며 온갖 물건들이 있었고 여자 어른들이 입는 바바리 코트, 군복, 레이스 달린 속옷 들까지 있었는데 그걸 얼마나 재미있게 봤는지요. 좀 우습지만 여자들의 속치마 레이스나 모양이 얼마나 예뻐는지 두고두고 오래 봤어요.”

그림그리기를 좋아하던 소녀에게 별천지를 보여주던 책이었으리라. 막상 그녀는 좀 우스운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 책을 닦고 닳았을 때까지 뒤적였을 소녀의 모습이 순간 떠오르기도



책 작업이

보통 1년에서 길게는 3년도 걸리는데
 그림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채우는 것보다 구상하는 데 시간이 더 걸려요.
 아이들의 언어로,
 혹은 그림으로 만들어내야 하니까요.
 책장과 책장 사이 있죠, 그게 관건이에요.
 사람들이 책을 읽고 다음 페이지를 넘길 때
 머릿속에 제각기 풍성한 상상의 공간이
 만들어져야 해요.
 그런 상상을 자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요.”



1, 3. 「고양이는 나만 따라해」, 2005, 창비
2, 4, 5 「일과 도구」, 2008, 길벗어린이
6, 7. 「만화네집」, 1995, 길벗어린이

했다. 1993년 아들 만희에게 보여줄 그림책을 찾다가 직접 그림책 글을 쓰고 그림 그리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권 작가. 학부 전공은 식품과학과였고 후에 그림이 마음 한켠에 남아 다시 산업미술대학원을 갔다. 광고디자이너를 했지만 늘 일에 대한 회의가 있어 광고일도 오래 하지 못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창작그림의 첫 발을 댄 것이 미술운동과 '우리그림'이라는 단체에서의 활동이다. 우리그림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그림을 가르쳐주고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단체 활동을 정리할 즈음 그림책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었어요. 전시를 하면 그 그림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만 그림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림책으

로 출판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겠다 생각한 거죠.”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정말 즐거운 일일 것만 같다고 생각하고 처음 작업한 책이 『만화네 집』이었다.

한참 이야기 중에 열린 방문 사이로, 무려 '만화'도 지나간다. 만화네 집의 주인공, 권윤덕 작가의 아들 만희다. 향간에는 아들에게 보여줄 그림책을 찾다가 직접 그리게 되었다는 그림책이다. 아들 만희가 집으로 돌아와 집을 한 바퀴 돌아보고 잠이 든다는 내용인데 이 책은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은 또 그대로 인기가 많은 책이다. 대문 밖 화단의 꽃 이름을 맞추기도 하고 방안의 물건들의 이름을 되뇌어 보면서 이미 많은 것이 사라진 그 시절의 집을 떠올리게 한다.

책장과 책장 사이 상상과 소통의 공간

“책이 만들어지는 건 각기 다 다르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대개 일상에서 많이 얻어져요. 아침에 읽은 신문기사, 타고 가는 버스밖의 풍경, 키우는 고양이가 그런 것들이요. 책 작업이 보통 1년에서 길게는 3년도 걸리는데 그림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채우는 것보다 구상하는 데 시간이 더 걸려요. 아이들의 언어로, 혹은 그림으로 만들어내야 하나까요. 책장과 책장 사이 있죠, 그게 관건이에요. 사람들이 책을 읽고 다음 페이지를 넘길 때 머릿속에 제각기 풍성한 상상의 공간이 만들어져야 해요. 그런 상상을 자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요.”

만희네 집도 그랬다. 한 장의 구석에 흑백으로 된 부분이 다음 장 나올 공간으로 이동하는, 혹은 그 다음 장의 좁은 풍경이었다. 작가는 보여 지지 않는 그림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셈이었다. 작가와 독자의 소통이 중요한 거라고, 그 간극을 메우는 일에 힘을 쏟는 것이었다.

같은 맥락으로 그는 독자와의 소통을 위해 직접 만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그림이 아닌 권윤덕, 그 자신을 내보이는 일이다. 작은 도서관의 행사, 작가와의 만남, 강의 등의 요청은 가능한 나가는 편이라고.

“『고양이는 나만 따라해』라는 책의 모델이 우리 집 '진주'거든요. 아이들을 만나고 얼마 있다가 한 아이에게 전화가 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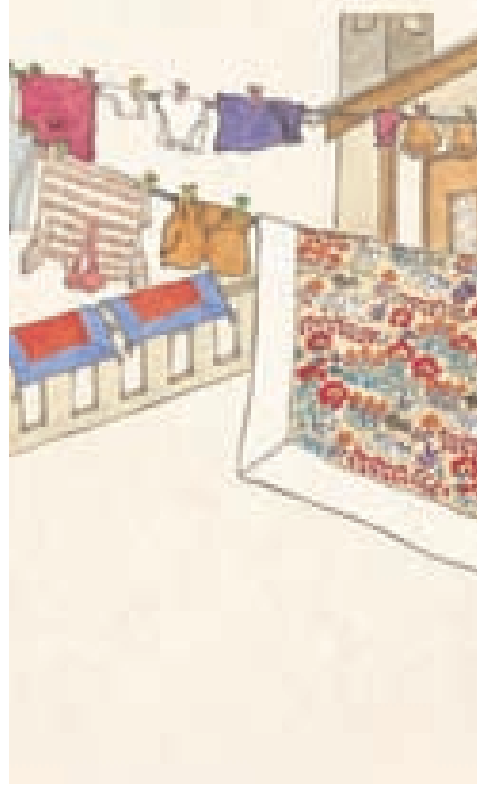
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고양이 좀 바꿔주세요,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었는지. 윤이 좋으면 진주가 야옹, 하고 대답하기도 하죠. 얼마 전에도 안산의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에서 마련한 '작가와와 만남'에 다녀왔는데 50명쯤 되는 아이들과 만났거든요. 아이들이 무척 밝고 정이 많아요. 그렇게 다녀오면서 아이들에게 작가란 어떤 의미로 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이야, 세상에는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있단다

소통을 위해 그림을 그릴수록 아이들에게 주는 가치관이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권 작가다.

“어느 집을 보면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다가 할머니가 더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와 어른에게 주어지는 가치관이 무엇일까 고민해요. 예쁜 그림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 죽음도 있고 어두운 것도 있다고 알려주고 싶어요. 강연을 다니다 보면 그림책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죠. 대체로 그림책을 만들려고 하면 그림 그리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기존의 잘 그려진 그림만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조선의 민화를 보면 형태가 틀리게 그리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그 그림만의 매력이 있잖아요. 중요한 건 자신의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칼라 복사나 프린트도 상태가 좋으니까 그림책을 간단히 몇 부만 만들어서 주변의 사람들과 나눠보는





것도 좋잖아요.”

작업을 하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다른 영역을 살피고 해석하는 것, 그것이 읽는 사람과 그리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더 많은, 더 더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붓을 든 이 작은 체구의 여인은 늙는 일이 즐겁단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며 고민하고, 또 독자와 과소통하는 일이.

방에서 나오니 웬 얼룩무늬 고양이가 앉아있다. 진주야, 하고 이름을 부르니 곧 냐옹, 하고 답을 하지만 막상 손을 갖다 대니 성질을 부리며 내뺨다. 책 속에서 초록 눈에 불을 밝히던(『고양이는 나만 따라해』 창작과 비평사, 2005), 이름 하여 진주라는 이름의 고양이이다. 이곳은 경계다.

그녀가 채색한 그림책의 세계와 그녀의 삶의 어디쯤, 상상과 현실이 만난다. 진주가 살짝 문 손가락을 쓱쓱 문지르며 그녀가 만드는 이야기를 더 잠자코 기다려 볼밖에.



권윤덕 그림책 작가

1960년 경기도 오산에서 태어나 서울여대 식물과학과,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을 졸업했다.
1993년 아들 만희에게 보여줄 그림책을 찾다가 직접 그림책 글을 쓰고 그림 그리는 일을 시작했다.
1998년 중국 북경에서 공필화 산수화를 공부했고, 2006년 관악산 불성사 범수 스님으로부터 불화를 배웠다.
옛 그림의 미감을 그림책 속에 재현하려고 노력한다.
지금까지 『만희네 집』, 『엄마 난 이 옷이 좋아요』, 『씹지않고꿀떡벌레는 정말 안 씹어』, 『생각만해도꿀떡벌레는 정말 잘 놀라』, 『혼자서도신나벌레는 정말 신났어』, 『시리동동 거미동동』, 『고양이는 나만 따라 해』, 『일과 도구』를 냈다.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를 다룬 『꽃할머니』가 곧 출간될 예정이다.

共通禮節

공통예절

우리나라의 절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한 마디로 지금 절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별로 볼 수가 없다.

얼마 전에 여자 국회의원이 상가(喪家)에 가서 조상(弔喪)하는 절을 하는데 남자의 절을, 그것도 신하가 임금에게 하는 고두배(叩頭拜)를 하는 것이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도되었다.

그 모습을 본 국민들은 "저것이 우리의 절"이라고 믿어 버리지 않을지 무척 걱정스럽다. 제대로 가르치는 데가 없어서인가? 아니면 하는 일이 많아서 절을 배울 겨를이 없어서인가? 상대편에게 공경을 나타내 보이는 절조차도 통일되지 못한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TV연극 속에서도 제대로 하는 절을 보기가 쉽지 않다. 이제 우리의 바른 절에 대하여 깊이있게 생각해 보기로 한다.



김득중 한국전례연구원 원장

4. 절하는 법과 경례 및 악수의 예절

가. 읍례(揖禮)와 굴신례(屈身禮)

1) 읍례 및 굴신례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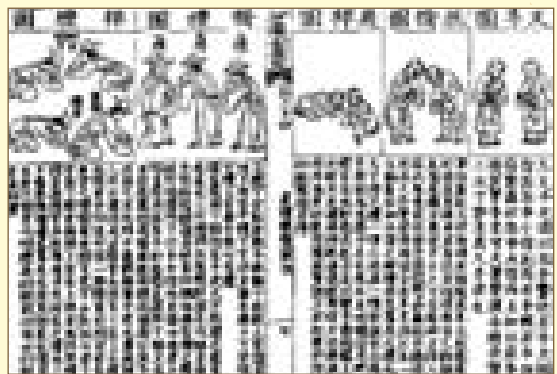
읍례는 장소관계나 기타 사정으로 절을 해야 할 대상에게 절을 할 수 없을 때에 간단하게 공경을 나타내는 동작이다. 그러므로 읍례는 간단한 예의 표시일 뿐 절은 아니다.(非拜而鮮禮) 따라서 어른을 밖에서 뵈고 읍례를 했더라도 절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들어와서는 절을 해야 한다.

요사이에는 경례(敬禮)를 읍례 대신 하지만 의식행사에서는 읍례를 해야 한다.

옛 문헌(沙溪家禮輯覽)에 의하면 남자에게는 읍례가 있으나 여자에게는 남자의 읍례에 상응하는 예의 동작이 없다. 그러나 일반생활이나 의례행사에서 남자는 읍례를 하는데 여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전통 혼인례에서 신랑은 신부에게 읍례를 하도록 했으면서 여자는 그에 대한 답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유형이 없다. 제의례에서도 주인과 주부가 제의대상에게 함께 예를 표하는데 주인은 읍례를 하고 주부는 그대로 있어서 불합리하다.

이런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여자는 굴신례(屈身禮)를 하던 될 것이다.



가례집람 도설 공수(拱手) 읍례(揖禮) 배례법(拜禮法) 부분

2) 읍례와 굴신례의 종류와 하는 때

남자의 읍례는 옛날에는 절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읍례를 하였

고 어른에게 간략하게 예를 표하려면 허리를 굽혀 읍례를 하였다. 그러나 현대에는 평상생활 속에서는 읍례를 하지 않고 의식행사에서만 절을 할 때마다 먼저 읍례를 하고 절을 하며 대상에게 경의를 표할 때나 어떤 동작을 할 때도 먼저 읍례를 한다.

여자의 굴신례는 평상시와 의식행사를 구분하지 않고 몇 번이든 절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한번만 굴신례를 하고 경의를 표할 때도 한다.

남자가 평상시에 절을 하고 난 다음에 굴신례를 하는 것은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양해되고 있다.

- ① 상읍례(上揖禮) | 자기가 읍례를 했을 때 답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높은 어른에게와 의식행사에서 한다.
- ② 중읍례(中揖禮) | 자기가 읍례를 했을 때 답례를 해야 하는 어른에게와 같은 또래끼리 한다.
- ③ 하읍례(下揖禮) | 어른이 아랫사람의 읍례에 답례 할 때에 한다.
- ④ 굴신례(屈身禮) | 남자의 읍례 대신 여자가 하는 굴신례는 상·중·하의 구분이 없이 허리를 안손(安遜)하게 약간(30도쯤) 앞으로 굽혔다가 일어난다.

3) 남자, 읍례의 기본동작(基本動作)

- ① 공수하고 대상을 향해 두 발을 편한 자세로 벌리고 서서 고개를 숙여 자기의 발끝을 본다. (그림 2313-1)
- ② 공수란 손이 무릎 아래에 이르도록 허리를 굽힌다. 공수한 손이 무릎 사이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림 2313-2)



2313-1 남자 읍례 기본자세



2313-2 공수 손이 무릎을 지나게



2313-3 하읍례 허리를 반쯤 굽힌다



2313-4 팔뚝이 수평 되게 올린다

- ④ 상읍례(上揖禮) | 팔꿈치를 구부려 공수한 손을 눈높이로 끌어 들인다. (그림 2313-5)
- 중읍례(中揖禮) | 공수한 손을 입높이로 끌어 들인다. (그림 2313-6)
- 하읍례(下揖禮) | 공수한 손을 가슴높이로 끌어 들인다. (그림 2313-7)
- ⑤ 공수한 손을 원위치로 내린다. (그림 2313-8)



2313-5 상음례 손이 눈높이



2313-6 중음례 손이 입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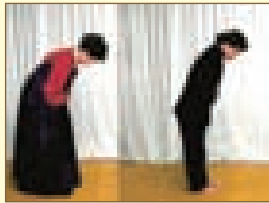
2313-7 하음례 손이 가슴높이



2313-8 공수를 내려 원위치

4) 여자, 굴신례의 기본동작

- ① 공수한 자세로 굴신례를 해야 할 대상을 향해 선다. 고개를 약간 숙여 시선을 상대의 발부 분에 둔다.
- ② 허리를 평경례(平敬禮)를 할 때와 같이 30도 정도를 안손하게 굽힌다. (그림 2314-1)
- ③ 잠시 머무는 듯하다가 허리를 펴고 원 자세로 돌아간다.



2314-1 여자 굴신례 허리30도 굽힘



2314-2 남자 절다음 굴신례 무방

● 위 굴신례는 남자의 읍례에 상당한 여자의 예와 경의를 나타내는 동작으로 정립된 것 인바 현대에는 남자들도 절을 하고 난 다음에 상대에게 경의를 나타내는 의도로 허리를 굽혀 예를 표하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의식행사 중에는 안 되지만 평상시의 절 다음에 굴신례를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평상시에는 남자들이 읍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난한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2314-2)

나. 배례법(拜禮法)

1) 절의 의미

절은 상대방에게 공경(恭敬)을 나타내 보이는 기초적인 행동예절이다. 절하는 대상은 사람뿐 아니라 공경을 해야 할 대상을 상징하는 표상(表象)에 대해서도 한다. 한 민족,

한 국민이라면 절하는 방법도 통일되어야 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절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약 4백 년 전인 1599년에 우리나라 예학의 종장이신 사계 김장생(沙溪 金長生) 선생께서 지으신 가례집람(家禮輯覽)에 그림까지 곁들여 제시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바탕으로 여기에 소개한다.

2) 절의 종류와 대상(對象)

남녀의 절은 음례의 경우와 같이 대상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

(1) 큰절

- ① 명칭 | 남자는 계수배(稽首拜), 여자는 숙배(肅拜)이다.
- ② 대상 | 자기가 절을 해도 답배(答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높은 어른에게와 의식행사에서 한다.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8촌 이내의 연장존속, 의식행사)

(2) 평절

- ① 명칭 | 남자는 돈수배(頓首拜), 여자는 평배(平拜)이다.
- ② 대상 | 자기가 절을 하면 답배 또는 평절로 맞절을 해야 하는 웃어른이나 같은 또래 끼리 사이에 한다. (선생님, 연장자, 상급자, 배우자, 형님, 누님, 형수, 시숙, 시누이, 올케, 제수, 친구사이)

(3) 반절

- ① 명칭 | 남자는 공수배(控首拜), 여자는 반배(半拜)이다.
- ② 대상 | 웃어른이 아랫사람의 절에 대해 답배할 때에 하는 절이다. (제자, 친구의 자녀나 자녀의 친구, 10년 이내의 남녀 동생, 8촌 이내의 10년 이내 연장비속, 친족이 아닌 16년 이상의 연하자)

3) 절하는 요령

- ① 기본횟수 | 절을 많이 할수록 공경을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남자는 양(陽)이기 때문에 최소양수인 한 번, 여자는 음(陰)이기 때문에 최소 음수인 두 번이 기본횟수이다.
- ② 생사의 구별 | 산 사람에게는 기본횟수만 하고, 의식행사와 죽은 사람에게는 기본횟수의 배를 한다. (옛날에는 산 사람에게도 기본횟수의 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 ③ 절의 재량 | 절의 종류와 횟수는 절을 받을 어른이 시키는 대로 변경하거나 줄일 수 있다.
- ④ 절의 생략 | 절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절할 대상을 만났을 때는 절을 하지 않고 경례(옛날에는 음례 굴신례)로 대신한다. 경례를 했더라도 절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겼으면 절을 한다.
- ⑤ 절하는 시기 | 절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절할 대상을 만나면 지체없이 절한다. “앉으세요” “절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절을 받으실 어른에게 수고를 시키거나 명령하는 것이라 실례이다.
- ⑥ 맞절의 요령 | 정중하게 맞절을 할 때는 아랫사람이 하석(下席)에서 먼저 시작해 늦게 일어나고, 웃어른이 상석(上席)에서 늦게 시작해 먼저 일어난다.

⑦ 답배의 요령 | 웃어른이 아랫사람의 절에 답배할 때는 아랫사람이 절을 시작해 무릎을 꿇는 것을 본 다음에 시작해 아랫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끝낸다.

비록 제자나 친구의 자녀 또는 자녀의 친구 및 16년 이상의 연하자라도 랫사람이 성년(成年)이면 반드시 답배를 해야 한다.

⑧ 큰절의 횟수 | 남녀 모두 큰절은 곱배(袷拜)라 해서 기본횟수(남자 1배, 여자 2배)의 배(倍)를 하는 것이 전통 배례법이다. 그러나 요사이는 의식 행사에서만 기본횟수의 배(남자 2배, 여자 4배)를 한다. 직계존속에게는 곱절[袷拜]을 하는 가정이 요사이도 많다.

⑨ 절하는 위치 | 혼인례에서의 현구고례(婚姻禮 見舅姑禮) 때를 제외하고는 공간이 허용하면 절을 받을 사람과 같은 방에서 상하석에 위치해 절한다.

(신분제도가 있었던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 절하는 위치가 달랐다.)

4) 절을 받는 예절

절을 하는 것도 예절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절을 받는 예절도 중요하다.

절을 받는 어른이 절을 받을 자세가 안 되었다거나 절을 하는 사람에게 상응한 답배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무례하다.

① 절을 할 아랫사람을 만나면 편안한 마음으로 절할 수 있도록 절받을 자세를 취한다. 절이 공경하는 마음을 나타내 보이는 행동방식이라면 절을 받는 사람도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이다.

② 누워 있으면 일어나고, 음식을 먹던 중이면 상을 한쪽으로 비껴 놓고, 불안정한 위치면 편리한 장소에 좌정한다.

③ 절하는 상대에 따라 맞절을 할 처지이면 평절로 맞절을 한다. 맞절을 할 상대에게는 절은 기본동작에 맞게 정중하게 한다.

④ 반절로 답배할 상대에게는 간략하게 반절로 한다.

⑤ 절할 아랫사람의 건강, 복식, 상황 등이 절하기가 불편한 상태면 절하지 말라고 권해도 된다.

⑥ 친척관계가 아닌 아랫사람의 절에는 상대가 미성년이 아니면 반드시 상응한 답배를 한다. 미성년의 절에도 칭찬을 겸한 입(말) 인사를 한다.

⑦ 꼭 절을 해야 할 아랫사람에게 절하지 말라고 사양이 지나치면 오히려 실례가 된다.

5) 절의 횟수(回數)

옛날에는 절을 많이 할수록 더욱 공경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지만 현대는 그렇지 않다.

① 산 사람에게 평상시에 하는 절은 한 번이다.

② 죽은 시체나 죽은 이를 상징하는 위패에는 남자는 두 번, 여자는 네 번 절한다.(제례의 절, 곱절이라 한다)

③ 직계존속의 수연(壽筵, 생신행사)에서 헌수(獻壽) 할 때는 남자는 두 번, 여자는 네 번 절한다.(요사이 수연례에서 자손이 헌수할 때에 3배를 하는데 3배를 하는 절의 예절은 없다.

절은 기본횟수 아니면 곱절이 전통적인 절의 예절이다.) 그러나 절을 받을 어른이 절의 횟수를 줄이라고 명하면 그대로 한다.

④ 전통 혼인예식에서의 절은 신부는 두 번씩 두 차례하고, 신랑은 한 번씩 두차례 한다. (신랑과 신부는 동위격(同位格)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곁절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식이기에 기본횟수를 두 차례 하는 것이다.)

⑤ 신부가 현구고례(見舅姑禮, 폐백 때)에서는 윗대 어른이신 시부모에게 절하는 것이기에 정식으로 곁절을 하여 한 차례에 네 번씩 절한다.

6) 맞절·답배(答拜)를 하는 경우와 방법

① 직계존속이나 아내의 직계 남자존속이 직계비속이나 사위 손서의 절에 대해서는 답배하지 않는다.

② 나이가 많은 8촌 이내의 방계존속이 나이가 적은 8촌 이내의 방계비속이나 그 아내의 절에는 답배하지 않는다.

③ 8촌 이내의 방계존속과 비속의 관계라도 비속이나 그 아내가 나이가 많으면 반절로 답배한다.

④ 형이나 누님은 8촌 이내의 남동생이나 여동생의 절에는 답배하지 않는 것이 일반이지만 나이 차이가 10년 이내이며 서로 늙는 처지에서는 반절로 답배하는 것이 아름답고 중후(重厚)하고 예스럽다.

⑤ 시누이와 올케, 시숙과 형·제수·동서 간에는 평절로 맞절한다.

⑥ 장모와 처조모가 사위와 손서의 절에는 반절로 답배한다.

⑦ 사위가 손아래 처남·처질부·처질녀의 절에는 반절로 답배한다.

⑧ 8촌이 넘는 친척이나 기타 사회적 사귀의 절에는 다음과 같이 답배한다.

㉠ 15년 이내의 연령 차이에서는 평절로 맞절을 한다.

㉡ 16년 이상 연하자의 절에는 반절로 답배한다.

㉢ 미성년의 절에는 답배하지 않고 말로만 인사한다.

7) 절을 하는 선후(先後)와 위치

① 절을 하는 선후는 맞절의 경우라도 아랫사람이 먼저 시작해 늦게 끝나고, 웃어른이 늦게 시작해 먼저 일어난다.

② 같은 장소에 웃어른이 여럿일 때는 직계존속에게 먼저 절하고 다음에 방계 존속에게 한다.

③ 같은 위계와 서열의 남녀 어른에게는 남자에게 먼저 하고 다음에 여자어른에게 한다.

④ 친척어른과 친척이 아닌 어른이 함께 있을 때는 친척어른에게 먼저 한다.

⑤ 절을 하는 위치는 웃어른이 상석에 앉고 아랫사람이 하석에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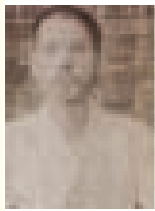
⑥ 절을 받을 어른이 있는 방이 넓으면 그 방에서 절하고, 방이 좁으면 잘 보이는 웃방이나 마루에서 하기도 한다.

⑦ 일부 지방에서는 직계존속에게 절할 때 뜰아래에서 하기도 한다. 그러나 예서에는 신부가 현구고례를 하는 경우 외에는 뜰 아래에서 절하도록 규정된 곳을 아직 보지 못했다.

문 화 원 이 모 저 모 NEWS

논산문화원

독립운동가 아성 방한민 선생 학술 강연회



박은진 - 문화원장학 연구자 방한민
 문화원 원장(1월 15일 ~ 16일)은 1920년 1월 15일
 * 문화원장은 방한민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소개하는 특강을
 * 방한민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소개하는 특강을
 * 방한민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소개하는 특강을



논산문화원(원장 박은진)은 1월 15일(금) 오후 2시, 논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논산 강경 출신 독립운동가 아성 방한민 선생 공훈선양 학술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아성방한민선생기념사업회(회장 임덕규)와 논산문화원이 공동주관한 이번 강연회는 한일합병이 이루어진지 100년이 되는 새해 2010년, 정부는 1월의 독립운동가로 아성 방한민 선생을 선정하여 언론, 교육투쟁의 선구자 방한민 선생 탄신 110년을 기념하고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재조명하는 행사가 되었다.

사단법인 대한민곡선국선열유족회 주최로 개최하게 된 본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공훈선양 학술 강연회 순서로 진행되었다. 강연회에 앞서 방한민 선생의 손녀 이자 시인 방지원씨의 시 낭송으로 객석은 숙연함속에서 선생을 추모하기도 하였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학 전명희 교수는 '아성 방한민 선생의 삶과 민족해방운동'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쳐 선생의 삶을 통한 업적을 바로 알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성 방한민 선생은 1920년 조선일보 창간 사회부 기자로서 신문기자의 양심을 지켜 식민지 강점자 일제의 죄악상과 친일 매국 역적들의 물골을 가차 없이 폭로 단죄하면서 언론을 통해 '왜놈'이란 신조어로 일제의 통치를 통렬히 비판하여 민족의 가슴속에 항일의식을 심어주어 항일 독립 운동가들의 독립투쟁의 불씨가 되신 분이다.

선생은 일본 동경에서는 한글판 '문화신문'을 창간하고 주간으로 일제의 잔학상을 국내외에 알렸으며 북한도 용정에 '동양학원을 설립, 교사로 항일민족교육을

실시하고 의열단을 조직하여 총독압살미수 등 용정과 서울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징역 17년의 형을 받고 13여년간 모진옥살이를 하신분이다.

포천문화원

2010 정기이사회 개최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지난 21일 이사 및 감사를 포함, 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09년도 감사보고, 2009년도 사업추진실적, 2009년도 예산결산안, 2010년도 사업추진계획, 201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회원 신규 입학 및 탈퇴 보고 등 안건을 심의하고 2010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만구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0년도에는 우리문화원이 한 단계 더 발전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는 문화원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해로 만들 것을 다짐하며 이에 대한 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0년도 주요사업으로 반월문화제와 전국한시백일장, 전국회화대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결의 하였으며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은 "문화학교 운영", "학술연구발표회", "가족 시낭송 경연대회" 등의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더욱 많은 시민들이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특수 시책으로 "좋은 책 읽기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항토사 바르게 알기 경시대회"를 청소년들에게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특히 점차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의 편지 공모전"을 확대 추진하여 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해 문화원이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

문화원이모저모 NEWS

남해문화원

제1회 남해유배문학작품 공모 시상



남해문화원(원장 이호균)남해유배문학 고료 1,000만원 작품공모전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윤정아(충북청주)씨에게 상금 300만원과 상패, 우수, 장려 입선자에게도 각각 상패와 시상금을 전달했으며 2010년 노도문학의 섬 조성을 통해 보물섬 남해를 유배문학의 성지로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하였다

제2회 경남사랑 실버가요제전개최



남해문화원(원장 이호균) 경남사랑, 남해사랑, 실버사랑, 제2회 경남실버가요제전을 20개 시·군경남 실버세대들의 활기찬노년을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창원에서 출전한 최강자님이 대상을 수상하여 상장과 부상으로 2박3일간 제주도여행권 최우수 남해이중매, 우수 청년정경수, 장려 진해우영자, 박길자, 김명희, 인기상, 거창이순경님께 상장과 상품 전달, 나머지 출연진에게는 전원 남해 흑마늘엑기스를 전달하였다.

2010남해군민과 함께하는 신년음악회



남해문화원(원장 이호균) 지난 1월 29일 오후 문화향기로 가득 채우기 위해 첫 발자국을 찍었다.

이번음악회는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며 공연예술 행사를 통해 공연문화 관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보물섬 남해군립합창단의 소양강치너, 그리움, 이리랑메들리, 레젠블루오케스트라 팝, 가요, 민요연주, 소프라노 윤소영, 테너 은형기, 앙상블합창에 무인도를 부름으로써 음악회의 마지막을 성대하게 장식하였다

문경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 이취임



문경문화원(원장 채대진)은 1월 27일 영강문화센터에서 고재하 유림단체협의회회장, 남효근 조령한사회장, 채희운 문경향교 전교, 권영길 문경문화유적회장, 함영호 문경시 문화예술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향토사연구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2년 동안 향토사연구소장으로 재임하면서 향토사료 22집인 '산북의 마을들'을 펴내고, '문경문화원 42년사' 편집을 완료한 김학모 소장은 이임사에서 연구원들의 역량을 펼쳐보이도록 내 역할을 다해 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 먼저 재임하는 동안 부족한 저와 함께 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 하였다.

문 화 원 이 모 저 모 NEWS

1937년 산양면 진정리 추산 마을에서 출생한 김학모 소장은 1963년 공직에 발을 내딛고, 1998년 산양면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퇴임한 후, 문경문화원 향토사연구소에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향토사 발굴에 11년을 비쳤다. 그동안 김학모 소장은 다른 연구위원들과 함께 미발굴, 비지정문화재 106건 219점을 조사하여 1/5,000 지도에 표기하고, 이 문화재들을 도면화 하였고, 이를 문경의 문화재대관으로 발간하였다.



또한, 1998.4~12까지 고모산성 전체를 실측하고, 축성방법 및 성곽특징과 성격을 규명하여 [고모산성]이라는 향토사료집으로 발간하여 전국에 배부였다. 한편 이날 새로 취임한 이육(李旭) 소장은 1941년 점촌 출생으로 1965년 (주)봉명에 입사하여 1991년 공무과장으로 퇴임하였으며, 그 후 문경문화원의 총무과장, 사무국장, 문화원연합회 경상북도지회 사무처장을 역임한 문화원과 유림의 선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성남문화원

제9회, 성남시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 개최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은 2월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분당구청 앞 문화의 거리에서 '제9회, 성남시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시민 참가 행사로 연날리기(선착순 800명 '연' 무료 배부), 윷놀이, 팽이치기, 제기차기, 투호 행사와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부럼 박 깨기', '소원성취 글쓰기' 등의 민속 행사, 떡치기, 엮기치기 등의 다채로운 전통행사가 마련되어

많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어서 끝 행사로 오후 3시부터 '판교 쌍용거줄다리기' 시연이 있었다. 성남 판교 지역에서 예로부터 풍년을 기원하고, 액운을 멀리하기위한 하나의 행사로, 2005년 판교 신도시 개발로 중단되었다가 성남문화원이 보존회를 재정비하여 이날, 시연하게 되었다.

우리의 소중한 전통 문화를 전승시키기 위한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 판교 쌍용 거줄다리기'를 통해 사라져가는 옛 정취를 느낄 수 있었던 행사로, 가족과 함께 축제를 즐기기 위해 많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제91주년, '성남 3·1만세운동 기념식' 개최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은 제91주년 3·1절을 맞아, 오는 3월 1일 오전 10시 30분, 성남 3.1만세운동 기념공원(분당 율동공원 내)에서 '성남 3·1만세운동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한국농악보존협회 성남시지회의 '풍물놀이' 식전행사와 국민의례, '성남3·1운동 역사보고', 한춘섭 문화원장의 '기미독립선언서 낭독', 시장, 시의장의 경축사에 이어서 현시 만세 터에 서서 (작사: 한춘섭)낭송과 기념공연 '검정 고무신(신미경 무용가), 3·1절 노래 제창(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 만세 심창으로 끝마쳤다.

성남문화원은 한백봉, 한순희, 남태희 선생의 주도하에 주민 3,000여 명이 독립 만세운동을 벌였던 분당구 율동에, 역사적인 만세운동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2006년 3월 1일 성남 3.1만세운동 기념탑을 제막했고, 매년 '성남 3.1독립만세운동 기념식'을 갖는다.

평택문화원

‘문화복지 사업’ 본격 추진



평택문화원(원장 오용원)은 지난 3일 평택문예회관 세미나실에서 2010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2010년도 사업으로 전통문화의 보존 및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등 세부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감사보고를 시작으로 2009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2010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감사를 새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1년도 2월 20일 평택문화원 개원 4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은호 부원장)를 구성하기도 했다.

평택문화원의 2010년도 주요사업으로는 △회원사업으로 향토문화탐방과 총력공 이대원 장군 문화유적탐방, 상년례, 어르신 문화학교, 실천예절 교육과정, 기획공연-국악 콘서트, 클래식 콘서트, 실크로드페스티벌 등이 있으며, △전통문화 발굴 및 보존 사업으로 오룡마을과 동령마을 대보름축제,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 소사벌 단오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토사 발굴사업은 <포승읍지> 발굴을 비롯해 초등학생을 위한 동화책 <그림으로 보는 평택이야기>와 <이대원 장군 인물지> 발굴 사업을 추진한다. 또 각종 개발계획으로 사라져가는 평택시의 마을 및 기관, 건축물, 생활상 등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문화재 및 평택시 발전상 기록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처음 추진되는 '역사기록 보존사업'은 파기 및 손실될 수 있는 고서 및 민속자료를 발굴해 평택시 향토사 연구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문화관광 활성화사업으로는 평택시티투어 및 외국어에 능통한 평택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운영 등 지난해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은 사업들을 올해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혜초, 정도전, 안재홍 등 평택의 역사인물 재조명을 통한 '평택의 정신적 철학정립 연구' 사업을 추진해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평택의 고유 문화와 정신을 보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된다. 또 '노을 브랜드화 사업'으로 노래비 건립

및 노을 국악 동요제 등을 통해 평택이 국민애창동요 '노을'의 본고장임을 부각시켜 지역 문화 브랜드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동대문문화원

왕언니 클럽 'KBS 전국노래자랑' 인기상 수상



동대문문화원(원장 김영섭)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실버세대들의 자신과 지역의 문화자산을 발굴, 개발하여 문화를 매개로 다른 세대와 소통하면서 사회에 봉사하고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노인 일자리(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한국문화원연합회와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문화학교' 실버중창단-왕언니 클럽이 30주년을 맞이한 KBS1 TV의 간판 프로그램인 '전국노래자랑-동대문구 편'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본선에 진출, 인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2009년 1월 '제1회 MBC 어르신 가요제' 은상 수상에 이어 두 번째 공중파 가요제 입상.

동대문구를 비롯하여 각지의 시청자들이 모여들어 총 520여 팀이 신청한 이번 노래자랑은 1차, 2차, 3차까지의 치열한 예선을 통하여 총 16팀의 본선 진출자가 가렸다.

당당하게 인생을 즐기는 노년층의 모습을 보여주고 인정받은 동대문문화원 왕언니클럽은 '동대문 왕언니' 팀을 구성하여 대표적 홀러간 가요인 '아메리칸 마도로스'를 노래와 인무 그리고 의상과 소품까지 완벽하게 선보임으로써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즐거움을 선사하기 충분하였다. 본 방송은 1월 마지막 주 일요일인 31일에 KBS1 채널에서 방송되었다.

우리 문화 소식 NEWS

국회의원 김금래 초청 여성문화원장 간담회



지난 2월 19일(금) 12시에 국회의원 김금래 초청 여성문화원장 간담회가 열렸다. 여성 지방문화원장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여성 국회의원과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지방문화원 발전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지방문화원 여성문화 프로그램 특화 발굴하고 전국 여성문화원장 정보교류 기회 마련하며 여성 지방문화원장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지방문화원 자원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이 날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을 비롯하여 김금래 국회의원, 여성 지방문화원장 8명(우측 표 참조) 송병호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과장, 정갑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이 참석했다.

여성 지방문화원장 현황

(2010. 2월 현재)

지역	문화원명	성명	취임일
서울	용산	박영희	'05. 2.23
	구로	장영신	'05. 3.10
대구	북구	남성희	'03. 3. 7
	수성	박순복	'09. 4.22
인천	연수	김원옥	'09.10.22
경기	여주	이난우	'08. 3.18
충남	연기	임영이	'06. 3.10
	당진	정정희	'02. 9.10
	서천	백해승	'10. 1.26
경북	의성	허영자	'09.11.20
경남	진해	우영자	'06.11.12

회장동정

2월 8일 춘천문화원 개관식 참석

2월 17일 한국문화원연합회 2010년 국고보조금지원사업 설명회 참석

2월 18일 안동문화원장 이취임식 참석

2월 19일 국회의원 김금래 초청 여성문화원장 간담회 참석

문화원 새얼굴



**전라남도지회장에
김학근(金學瑾)**

1936년생, 곡성문화원장
곡성여자중학교 교장 정년퇴임(40년 근속)
국가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광주·전남협의회장



**군포문화원장에
송운석(宋胤錫)**

1936년생, 군포시의회 초대 부의장
군포 YMCA 초대 이사장
푸른희망군포21 실천협의회회장
군포시사편찬위원회 집행위원장
재임



**광진문화원장에
정병용(鄭炳龍)**

지역경제활성화 저문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의원
광진장학회 이사, 고구려역사공원조성위원회 이사
(주)제일산업 대표이사, 한국체인공업(주) 및
능동주유소 대표이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회 수석부회장
광진문화원 부원장 역임



**서천문화원장에
백혜승(白惠勝)**

1952년생, 서천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역임
서천문화원 부원장 역임
충청남도 도정평가단 부위원장
홍성감찰청 형사조정위원



**성남문화원장에
한춘섭(韓春燮)**

1941년생, 시조시인, 국문학자
한국문화원연합회 이사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부회장
제10대 성남문화원장
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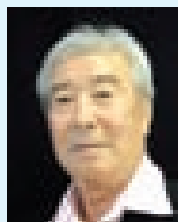
**함평문화원에
이진행(李辰行)**

1941년생, 공무원 정년퇴임(사무관)
성균관유도회전남본부감찰위원
전남문인협회 이사
대한민국문화대전 초대작가, 서예대전 초대작가
무등미술대전·전남도전 추천 작가
함평문화원 부원장 역임



**고양문화원장에
한학수(韓鶴洙)**

1944년생,
두기플러스 CEO, 고양문화재단 이사
재임



**안동문화원장에
이재춘(李載春)**

1941년생, 매일신문 기자·차장·부장 역임
대구일보 경북북부지역본부장 역임
안동문화원 부원장 역임
경상북도문화상·안동문화방송 향토문화상
자랑스러운 안동인상 수상
안동 차진놀이예능보유재(인간문화재)
안동시의회 저문위원장

원 장 동 정 NEWS

퇴임 원장



전 전라남도지회장 ·
함평문화원장
정원강(鄭元强)

1929년생, 초대민선함평군수
전라남도 도의원
전라남도체육회 상임부회장



전 서천문화원장
유성열(柳成烈)

1949년생
국사편찬위원회 서천군 사료조사위원
집필서적 '문제해결논리' 등 50여권



전 광진문화원장
신길웅(申吉雄)

1944년생
흥일종합건축 사무소 대표
건축사 광진구 장학희 감사



전 안동문화원장
김준식(金俊植)

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상임이사
안동시사편찬위원

김종 광주서구문화원장 과천과 서울에서 전시 열어 '허공, 그 눈부신 상처림 The air, its Glaring Table Setting'



지난 1월 7일(목)부터 15일(금)까지 과천 시민회관 전시실에서 김종 서구문화원장의 전시가 열렸다.

'허공, 그 눈부신 상처림 The air, its Glaring Table Setting' 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재기발랄한 작품들이 관객들에게 공개되었다.

'둥글게 둥지 짓고 등불 하나씩 내다걸듯 허기진 사람에게 허공의 구석구석에 수제비 같은 미감의 덩어리 덩어리를 떼어서 대접' 했다는 그의 말처럼 허공의 상처림에 많은 관객들이 즐기는 시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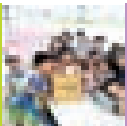
이어 서울 부암동의 자하미술관에서 18일(월)부터 30일(토)까지 전시를 열었다.

작품 '월인천강을 거닐다' 앞에서 그림을 살펴보는 김종 원장. 부암동 자하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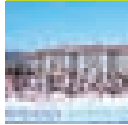
하이원리조트가 우리 소중한 꿈나무들과 함께 희망을 열고 있습니다



희망디딤돌
나눔디딤돌
미래디딤돌



지역복지
지역 재활력



교육사업
문화예술



사회공헌

폐광지역의 아이들에게 똑같은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소년 소녀 가장으로 살아가는 청소년을 돕기 위해, 하이원은 행복디딤돌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강원도 폐광지역은 정선 태백, 영월 삼척에 걸쳐 있으며 과거 주요한 에너지 생산지였으며, 현재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관광메카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하이원리조트

The 2nd World Conference on Arts Education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2010년 5월 25일~28일



● **대회일정** 2010년 5월 25일~28일

● **대회장소** 코엑스, 서울

●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협력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 **참가자** 193개국 국내외 문화예술교육관계자 2,000여 명
서울시 종로구 종로 1가 24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511호
이메일: 2010artsedu@korea.kr
홈페이지: www.artsedu2010.kr

